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낸 영웅들의 이야기”

영화 ‘돌아오지 못한 영웅들’ 제작 기자 간담회 개최

한미동맹 71주년을 기념해 제작되는 다큐멘터리 영화 ‘돌아오지 못한 영웅들’(The Unreturned of the Heroes) 제작 기자 간담회가 지난 4일 LA 코리아타운에 소재한 JJ 그랜드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남가주 6.25 기념사업회, 미주한인재단 LA, 남가주 육군동지회, 남가주 예비역기독교인회, 남가주 이북 5도민회, 3.1 여성 동지회 대표 등이 참석해 영화 제작에 힘을 실었다.

영화 ‘돌아오지 못한 영웅들’은 6.25 참전용사인 벤 플린트 장군의 실화를 중심으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참전용사들의 증언과 고증을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다. 제작은 ‘철가방 우수씨’, ‘지렁이’ ‘1919 유관순’ 등으로 유명한 윤학렬 감독이 맡았다.



영화 ‘돌아오지 못한 영웅들’(The Unreturned of the Heroes) 제작 기자 간담회

윤학렬 감독은 “‘돌아오지 못한 영웅들’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유엔의 젊은 청년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바쳐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기록”이라며 “오늘의 한국이 누리는 풍요는 그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민주

주의를 위한 희생의 터 위에 세워진 것임을 기억하고자 영화를 만들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윤 감독은 이어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의 가치가 무엇인지 돌아보고,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희생된 청년들의 헌신이 헛된 희생이

아니었음을 전세계에 알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돌아오지 못한 영웅들’은 오는 7월 27일 정전협정 68주년 기념일에 미국 상.하원에서 1부가 방영될 예정이다. 보훈의 달인 오는 11월에는 전미지역 송출을 목표로 제작되

고 있다.

영화 제작에 협력하고 있는 기드 운동족선교회 박상원 목사는 “6.25 참전용사들의 평균연령이 94세일 정도로 그들이 증언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며 “복음 통일을 앞두고 역사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고, 우리 다음 세대에 바른 역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미주 지역 한인 교계와 사회가 관심과 협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영화 ‘돌아오지 못한 영웅들’의 총 제작비는 120만 달러로 미국에서 10만 달러를 모금하면 한국 정부에서 나머지 금액을 매칭펀드로 후원하게 된다.

한편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북한에는 140여명의 생존 국군포로와 4만 여구의 돌아오지 못한 유해가 있으며, 미국은 6.25전쟁 당시 22개 참전국 중에서 가장 많은 180만여 명을 파견해 전사 약 34,000명, 실종 3,700여명 등 약 13만여 명이 피해를 입었다.

코로나 이후 첫 여름을 준비하는 미국 기독교 캠프



윈셰이프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 ©윈셰이프 캠프

미국 크리스천포스트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올해 여름에 크리스천 캠프 운영을 재개하는 미국 기독교 캠프와 단체에 대해 최근 보도했다. 조지아주 애크랜타에 본사를 둔 ‘윈셰이프 캠프(WinShape Camps)’

는 모든 연령대의 어린이를 위한 기독교 캠프로서, ‘안전 우선주의’는 코로나 이후에도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캠프의 재단 이사인 크리스 윌트는 CP와의 인터뷰에서 “정서적, 육체적, 영적으로 모든 방면에서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없다면 아이들을 돌볼 기회는 없으며, 그것은 변하지 않은 사실”이라며 “무엇이든 그것에 타협하지 않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재미있고 영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상황을 다르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윈셰이프는 최대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6개 캠퍼스 전역

에 직원 교육을 강화했다. 또한 캠프 참가자들은 최근에 코로나19 증상이 있었거나 감염자 접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캠프 전 설문지를 받게 되며, 매일 체온 측정을 포함한 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캠프는 또 모든 캠퍼스에 수용 인원을 제한하며, 캠프 당일에는 가족 그룹을 중심으로 장소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미주리 주 캔자스시에 기반을 둔 기독교 스포츠 사역인 ‘펠로우십 오브 크리스천 애슬릿츠(Fellowship of Christian Athletes)’도 올해 여름 캠프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이 단체의 회장 겸 CEO인 세인

윌리엄슨은 올해가 그 어느 때보다 캠프가 다음 세대에 “희망과 치유”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터뷰에서 밝혔다.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위치한 기독교 단체인 ‘영 라이프(Young Life)’는 올해 여름 캠프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삶을 변화시키는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라이프 캠프 수석 부사장인 채드 시버트는 인터뷰에서 “우리는 캠프를 여는 것을 간절히 그리워했다. 아이들은 캠프를 그리워했고 그 어느 때보다 캠프가 필요할 것”이라며 “올 여름, 우리는 캠프를 하는 이

유에 집중하며, 캠프를 여는 방법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캠프 참가자들과 직원들은 출입 검사를 받게 되며, 사회적 거리 두기가 힘든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캠프장은 방역을 위해 수용 가능한 인원보다 적게 수용할 방침이라며, 가급적 식사와 행사는 야외에서 진행하고, 캠프 곳곳에 손 씻는 곳을 두며 하루에 여러 번 소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버트는 올해 이 캠프가 수용하게 될 인원으로 5만 여 명을 예상했다. 강해진 기자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질,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 동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rito Ave, 뉴서울 호텔 건너편)

그린카피어 리스 & 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혜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OLYMPIC ZION AUTO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SE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Tune-Ups
 ■ A/C Service
 *월~금 : 8AM~6PM, 토 8AM~4PM *32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323)730-0112, (323)735-3180

월드미션대학교

간호학과 (RN to BSN) 신입생 모집

- 2021년 8월 23일 개강
- 간호학 준학사 학위와 RN License 소지자 지원 가능
- 18개월 과정
- 18개월 총 학비 \$16,100 (분납 가능)
- 유학생 1-20 발행 (졸업 후 OPT 가능)
- ABHE 인가
- 100% 온라인 강의
- 1:1 멘토 시스템의 학생 중심 학습
- 우수한 교수진과 Evidence-based Practice
- 미 정부 Financial Aid 및 학비 용자 (유자격자)

6월 30일 이전 등록시 입학금 (\$300) 면제

문의
 500 Shatto Place, Los Angeles, CA 90020 • www.wmu.edu
 Tel : (213) 388-1000 • E-mail : wmuinfo@wmu.edu

* 본 대학 입학시 교양학, 신학 학점이 미비한 경우 추가로 이수해야함

WORLD MISSION UNIVERSITY
 TRANSFORMATIONAL BIBLICAL EDUCATION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교육 강화로 국제화 시대 교육 환경 구축 할 것”

2021년 제30회 학위수여식 총 106명에 학위 수여, 첫 간호학과 졸업생 배출



2021 월드미션대학교 제 30회 학위수여식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임성진 박사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 이하 WMU)는 지난 5일, 온라인으로 제30회 학위수여식 갖고, 학부(성서학, 기독교상담학, 간호학)와 대학원(신학, 목회학, 상담심리학, 음악학) 졸업생 총 106명에게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올해 학위 수여식에는 처음으로 18명의 간호학과 졸업생을 배출하며 기독교 의료종사자 양성을 향한 비전에 한 발짝 다가섰다. 또 국제화를 향한 WMU의 노력에 발맞춰 예년과 마찬가지로 전세계 다양한 국가의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일반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학업을 마쳤고, 라틴프로그램을 통해 히스패닉 졸업생들이 배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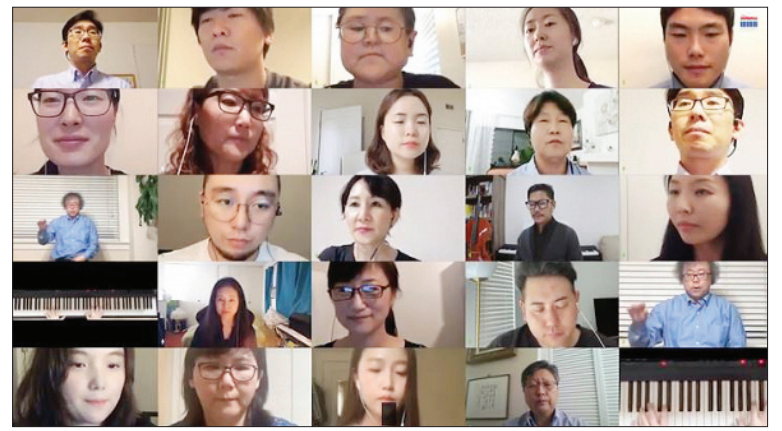
특히 코비드 팬데믹 상황에서도 고강도 성실히 준비해온 온라인 교육

시스템으로 미국과 한국, 전세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성과가 돋보였다. WMU는 기독교 종합대학교로의 목표를 불붙고, 온라인 교육을 강화한 교육 혁신으로 국제화 시대를 맞을 계획이다.

이날 메시지를 전한 임성진 총장은 “2019년 말부터 시작된 팬데믹으로 인해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WMU는 더욱 내실을 다지

며 학교 발전을 향한 전폭적인 개혁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 총장은 이어 “다양한 분야의 기독교 사역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도입과 특별히 온라인 프로그램 확장으로 전세계 사역자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WMU는 앞으로도 영성과 인성을 갖춘 역량 있는 기독교



2021 월드미션대학교 제 30회 학위수여식에서 온라인으로 교가를 부르는 학생들

사역자 양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표로 졸업생 답사를 전한 한미정 씨는 “유래 없는 코비드19 팬데믹에서도 사전에 잘 구비된 온라인 학업 시스템을 통해 흔들림 없이 학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며 “한국과 미국 전역, 전세계에서 학우들과 함께 강의를 듣고 토론하며 실천적 학문을 배울 수 있었다”고 학교

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월드미션대학교는 설립자 임동선 목사의 “세계는 나의 목장이자”라는 목표와 신년 아래 1989년 3월 27일 설립됐으며, 개신교 복음주의에 입각한 영적 훈련과 학문으로 오늘날까지 세계 선교를 위한 선교사, 목회자, 평신도 지도자를 육성하고 있다.

김동욱 기자

교회가 가장 필요로하는 사역 기술... 동영상 라이브 및 편집, 디자인



지난달 27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GMU 제임스 교수 ©기독교일보

“교회 내 미디어 사역 분야 계속 확대 될 것”

코로나 팬데믹으로 비대면 예배가 활성화 되면서 교회 내에서도 IT 관련 사역에 대한 필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레이스미션대학교(총장 최규남 박사, 이하 GMU)실시한 ‘신학교 미래 발전을 위한 정보통신 교육 커리큘럼 개발을 위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비드 19으로 인해 변화된 사역 환경에서 가장 필요한 기술은 동영상 라이브 및 편집기술, 그래픽 디자인 관련 기술, 줌 화상 컨퍼런스 기술, 웹사이트 관리 기술 등으로 나타났다.

또 뉴스레터와 메일링 기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소셜 미디어 관리 기술, 비대면 교육을 위한 온라인 교육 시스템 관리 기술, 교회 행정을 위한 문서 편집 기술 등을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사역으로 꼽았다.

목회자들은 전반적으로 미디어와 IT사역을 어려운 과제로 인식하면서 인력과 재정 부족을 토로했다.

설문에 따르면 대부분의 교회와 사역자 전문 미디어 담당자가 5명 미만이었으며, 현재 담당 사역자들

도 IT 관련 분야 전문사역자가 아닌, 부목사나 전도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코로나 이후에도 비대면과 온라인 사역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방식에 익숙해 졌다고 파악했다.

GMU 제임스 구 교수는 “코로나 이후에도 IT와 미디어 사역에 대한 분야는 계속 확대되어 갈 것”이라며 “교회에서는 목회자들만이 아니라 평신도들이 IT 관련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제임스 구 교수는 또 “GMU는 정보통신 및 미디어 특강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교회 사역 현장에서 필요한 분야의 기술교육, 평신도 교육 개발을 위한 온라인 실용과목 개설 등 미디어 전문 사역자 양성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편 GMU 실시한 ‘신학교 미래 발전을 위한 정보통신 교육 커리큘럼 개발을 위한 설문조사’는 5월3일부터 5월15일까지 일반 목회자 66명, 재학생 21명, 졸업생 22명 등 총 10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김동욱 기자

솔로몬대학교 제21회 졸업식 개최



솔로몬대학교 제21회 졸업식

솔로몬대학교(총장 백지영 박사)는 지난달 29일, 제21회 졸업식 및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졸업식 및 학위수여식에서는 기독교 상담학 박사 3명, 목회학 석사 3명, 신학학사 3명 등 총 9명이 학위를 받았다.

이날 졸업식은 백지영 총장의 인사에 이어 남가주교협 증경회장 지용덕 목사가 대표기도를 했으며 김재율 목사가 “하나님의 좋은 병사”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또 남가주교협 조병국 회장, 권다니엘 박사 등이 축사했다.

코엠 커뮤니티 센터 KOAM Christian Community Outreach Center

저렴한 비용으로 도와드립니다.

- 비영리단체등록
 - 비영리 단체 세금 보고
 - 특허
 - 주 교육국(인준) 상담해 드림
- David Lee (213)422-8916, (818)523-1119



제237차 목회자를 위한 가정교회 세미나

평신도가 살아나는 목회!

신약교회의 능력을 회복하는 성경적 교회를 현실로!

[날짜] 2021년 7월6일(화) ~ 7월11일(일)
 [장소] 휴스턴 서울교회
 [신청기간] 2021년 5월 25일 ~ 6월 14일
 [온라인 등록] <http://www.seoulbaptist.org/>
 [문의처] 713-896-9200 / sbch.office@gmail.com

영어 세미나도 제공됩니다
 [신청기간] 2021년 5월 1일 ~ 5월 31일
 [온라인 등록] <https://nlfhtx.org/>
 [문의처] 713-896-7755 / seminar@nlfhouston.org
 [장소] 휴스턴 서울교회 영어회중 NLF

가정교회에 대해 궁금하세요?

GBC 미주 복음방송 (AM 1190 또는 <http://www.kgbc.com>)에서 방송되는 “GBC초대석” 에서 (휴스턴 서울교회 담임목사) 이수관 목사를 통해 들어보실수 있습니다.

CDC 가이드 라인에 따라 진행되는 대면 세미나입니다.

세계예수교장로회 제45차 총회 신임총회장에 나정기 목사 선출

세계예수교장로회(WKPC)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나성열린문교회(담임 박헌성 목사)에서 “진진하는 총회”(이사야 41장10절)이란 주제로 제45차 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총회장으로 나정기 목사(미주서부노회)를 선출했다.

본국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에서는 GMS 이사장 이성화 목사, 백남선 목사, 허활민 목사, GMS 총무 전철영 목사 등 총회사절단을 파송해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총회장 소강석 목사도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 세계예수교장로회 제45차 총회를 축하했다.

총회 회무에는 목사 총대 261명, 장로총대 80명 등 총 341명이 참석했으며, 임원 선출과 강도사 고시 합격자가 발표가 진행됐다.

신임원으로는 목사 부총회장에 김정도 목사(대서양노회), 장로부총회장으로 김대식 장로(가주노회)가 선출됐으며, 서기 성요셉 목사(서가주노회), 부서기 송영일 목사(

중남부노회), 회록서기 김곤 목사(뉴욕노회), 부회록서기 김성환 목사(워싱턴노회), 회계 김준경 장로(가주노회), 부회계 김원섭 장로(뉴욕노회), 총무 하요한 목사(남가주노회)가 선출됐다.

또 강훈(가주노회), 김신균(미주서부노회), 김청만(대서양노회), 박종명(로스앤젤레스노회), 이이삭(미주서부노회), 제이콥(가주노회), 최종일(미주서부노회), 황성실(서가주노회), 홍상철(피터)로스앤젤레스노회) 등 9명이 강도사 고시를 합격했다.

첫날 개회 예배 설교를 전한 전 총회장 정우용 목사는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목회자들과 총회가 되자고 권면했다.

정 목사는 “세상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헌신하는 목회자들이 되자”며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



나성열린문교회에서 개최된 세계예수교장로회(WKPC) 제45차 총회

고, 코로나 시대 이후에 회복을 넘어 부흥과 성장을 향해 나아가자”고 전했다.

개회예배에 이어진 성찬예식은 증경총회장 최인근 목사의 집례로 동남부노회 이재광 목사의 기

도, 남가주 서부노회 이흥우 목사의 성경봉독에 이어 최인근 목사가 “나를 기념하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또 총회에서는 선교사 훈련과정을 마친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선교

의 밤 예배도 진행됐다. 교단 관계자는 선교의 밤 예배를 통해 교단과 교단 산하 목회자 및 평신도들의 선교 열정이 고무되고 재헌신의 시간이 됐다고 호평했다.

김동욱 기자

미주복음방송 ‘2021 나눔 On(온) 캠페인’ 10만 6천여 달러 모금



미주복음방송 나눔 On(온) 캠페인 특별 공개 생방송

미주복음방송(AM 1190)이 코로나19로 영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을 위해 지난 4월 20일 진행한 “나눔 On(온) 캠페인”에서 총 10만 6천 663달러의 성금이 모아졌다.

미주복음방송은 모아진 성금을 가지고 퍼스트펩킨 캠페인, 선교사 미션펀드 지원, 커뮤니티 회복 지원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미주 복음방송은 퍼스트 펩킨(First Penguin) 캠페인 단체로 남가주밀알선교단(단장 이종희 목사), 광야 국제 교회 (대표 빌리 노 목사), 연주팀 텔리리움 무지쿰 (대표 Etienne Gara), 찬양사역 단체

Overflow Ministry (대표 신용한), 방주교회 (대표 김영규 목사)를 선정하고 각 5천 달러의 나눔 활동비를 지원하게 된다.

또 태국 감창식 선교사 / 캄보디아 노진태 선교사 / 방글라데시 강순철 선교사 / 잠비아 김수경 선교

사 / 이스라엘 유진상 선교사 / 타이완, 이상란 선교사 / 파라과이 남학현 선교사 / 캄보디아 김종철 선교사 / 인도 오정환 선교사 / 아이티 김용신 선교사 등 총 10명의 선교사에게 선교 후원금 1천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동욱 기자

그레이스미션대, 유튜브 라이브 활용 미디어 공개 특강

그레이스미션대학교(Grace Mission University, GMU 최규남총장)는 오는 14일(월)과 24일(목) 양일에 걸쳐 유튜브 라이브 활용에 대한 미디어 공개 특강을 개최한다.

이번 공개 강의는 14일에는 기초, 24일에는 상급 과정 교육이 진행되며, 이론과 적용사례와 시연으로 참석자들이 개인 컴퓨터를 활용해 직접 실제 기기와 장비들을 연결하여 직접 실습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강의를 준비하는 제임스 구 교수는 “누구나 유튜브 실시간 영상 서비스 및 편집이 가능하도록 교육할 예정”이라며 “교회 및 선교단체 사역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개 강의는 목회자 및 평신도 사역자, 미디어 사역에 관심

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된다. 교육비는 1일 참석시 50달러, 2일 참석시 100달러다. 장소는 GMU 미라클 센터 빌딩(MC) 304호 강의실(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933)

교육비에는 교재, 점심 식사가 포함되며 미디어 사역에 도움이 되는 새찬송가 한글 PPT와 한영 PPT가 함께 제공된다. 또 히브리어, 헬라어 폰트 설치를 포함한 19가지의 성경 번역본과 원전분해 및 주석, 사전 등의 다양한 공개 Bible SW 등이 있는 64G USB도 함께 제공된다.

공개 특강 인원은 선착순 30명으로 제한하며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및 문의: 714-525-0088 김동욱 기자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의 복음통일선교도서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책의 추천자들: 오대원목사(예수전도단), 주선교수(영신대 명예교수), 이영희교수(에스대), 송영명목사(복음번대 공동대표), 권운목사(주필미주대), 신영민목사(동원대), 유관지목사(영일대), 김민석목사(KCC공명대)

• 영희 책은 아메리칸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20/권 + \$5 우송료

지금까지 3만 5천부가 판매된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영)과 속편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목한 김부 출신의 자전적 스토리와 지아성도들의 순교증언으로 지역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기적같은 여정이요, 우리에게 복음통일의 완수라는 분명한 메시지의 울림이다.

• 체크오더: GBM 모든 기부금은 세금공제의 혜택을 받는 사귄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기디온동생들 GBMW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425)775-7477 gbmwusa@gideonbrothers.org www.gideonbrothers.org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몸자가 될까? 안녕하세요? 18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날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현직 다 돌리세요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8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2021년도 가을학기 신입생 및 편입생 모집 중

Grace Mission University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 건실한 인격
- 강한 군사
- 세계 선교

• 찾아오시는 길

W Commonwealth Ave
S Brookhurst Rd
W Valencia Dr

Grace Mission University

ats ARHE CHEA

ATS정회원 ARHE정회원 TRACS정회원 Council for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

탁월한 복음주의 신학의 산실인 그레이스미션대학교에 오셔서 세계선교의 꿈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학위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차문화 철학박사 (PhD in ICS) •선교학 박사 (D.Miss) •목회학 석사 (M.Div) •기독교 교육학 석사 (MA CE) •교차문화(선교학)석사 (MA ICS) •기독교 상담학 석사 (MA CC) •기독교 상담학 학사 (BA CC) •신학사 (BA)
특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인신학교 최대규모의 도서관 •저렴한 교육비, 다양한 학교 장학금 수여 •LA 확장강의 운영 •한국어 및 영어강의 •스페인어, 중국어 동시통역 •유학생 1-20 발급 •연방정부 및 캘리포니아 주정부 학비보조 •온라인 통신으로 전과정 제공 (석사과정까지 100% 온라인 수강 졸업 가능. 박사과정 50%) •HD 시스템을 통한 고품질 온라인 강의 •한인신학교 최초 온라인 “Live” 강의 •Hybrid 강의 (대면 미팅 및 Zoom Lecture, 통신)

이벤트 1 Early Bird 장학금

• 온라인으로 입학원서 접수 후 입학허가를 받으시면 5월 500불, 6월 300불, 7월 150불의 Early Bird 장학금

이벤트 2 화상 및 Offline 입학설명회

5월 25일(화) 오후 2시 (한국어) 입학설명회
6월 17일(목) 오후 3시 (Offline) 입학설명회
6월 22일(화) 오후 2시 (영 어) 입학설명회
7월 8일(목) 오후 4시 (한국어) 입학설명회

화상 입학 설명회 링크(gm.edu/online)
Admission Zoom Interview : 213-993-4154(pw:2020)

* 자세한 학교 소개, 학위과정, 입학절차, 장학금소개, 통신수업 등 안내
*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입학금 면제 혜택
* 학교 홈페이지 LiveChat 및 Zoom 으로 실시간 입학상담가능

입학 문의: 714-525-0088(Ext 101) admissions@gm.edu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www.gm.edu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209

“멕시코 일주 선교지 방문기(1)”

멕시코 신학대학은 5월 첫째 주 토요일에 졸업식을 한다. 졸업식이 끝나면 졸업생들은 과송 받아 그들의 사역지로 가게 된다. 재학생들은 곧바로 방학이 시작되면서 4개월간의 긴 여름 방학을 맞아 직장을 구해 일하러 도시로 가는 학생과 고향으로 돌아가는 학생들로 나뉜다. 우리 선교사 가정들은 휴식 기간을 몇 주 가지면서 여름방학에 남부지역 치아파스 오화가 지역 등으로 선교지 방문 사역을 준비한다. 한 달간의 여정으로 다녀오는 선교사역 길이기에 사역에 관한 많은 준비를 하게 된다. 재정부터 시작해서 사역 자료들과 방문 교회 지원품과 선물 등을 바리바리 준비했다.

올해도 임 선교사 내외와 우리 내외가 필자의 밴 차량으로 멕시코 일주 여행을 계획했다. 총 3주간의 여정이다. 6월 7일 오전 8시 멕시코 신학교 교정을 떠났다. 밴 차량 안에는 우리의 짐 가방을 포함, 방문지에 전해줄 선물들 그리고 라파스 교회와 치아파스 교회에서 열릴 어린이 여름성경학교 교육자료와 포스터, 비품 등의 가방들을 실었다. 오꼬시모에 건립한 선교센터(대학원 교실)에 기증된 노트북 10대를 실었다. 노트북은 산호세 임마누엘교회 멕시코 칼리 단기선교팀이 기증하였다. 이렇게 밴 차량 뒤편에 짐을 가득 싣고 우리는 신학교 교정을 떠났다.

이번 여정은 바하 캘리포니아 지역을 멕시코에서부터 남쪽 끝 Cabo San Lucas까지 종단하는 계획대로 수행했다. 이 유는 이 지역에 우리 학교를 졸업한 사역자들이 5가정이나 진출하여 각기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다. 우리 선교사들은 훌륭하게 목회하는 유교 목사 이외에 개척 목회하는 4가정의 목회자들을 각기 방문하고 기도하였다. 두 학장 가정 방문하여 축



이상훈 목사
멕시코장로회신학대학장

복하며 격려하는 것에 모두 감격하였다. 이틀간 17시간을 운전해서 방문한 보람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해졌다.

이번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VBS) 줌으로 하는 동영상 프로젝트에 유교 목사 교회도 약 50명이 참여하기로 하였다. 3년전 신학교에서 한국 교회의 후원을 힘입어 예배당 건축을 지원했던 이번 목사의 교회는 개척한 지 3년 만에 큰 부흥을 이루었다. 자랑스러웠고 대견하기도 했다. 다른 개척자들 가정은 열심히 하고 있으나 교회 부흥이 더디 되고 있다. 필자는 그들에게 낙담하지 말고 범사에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목회하기를 당부하였다.

그들과 몇 시간 시간을 갖고 계속 기도하며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연구하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그들과 헤어져 페리션을 타기 위해 라파스 항구로 향하는 우리 선교사들의 마음은 많이 아팠다. 그들의 부모 형제 친구들이 있는 고향을 뒤로 하고 오로지 교회 개척을 위해 타지에 와서 가정 교회부터 시작하여 교회 개척을 하는 그들의 수고를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했다. 다들 우리 자식 같은 청년들이다.

우리는 라파스에서 페리베를 타고 본도 마사뜨란 항구로 갔다. 항해 길이는 12시간이었다. 저녁 7시에 타서 아침 7시까지 가는 배이다. 마사뜨란 항구에서 곧바로 과달라하라로 갔다. (계속)



강태광목사의 인문학 강의

성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인문학으로 읽은 바울의 생애 ② “아테네설교에 담긴 헬라 철학”

바울이 아테네 아레오파고스에서 설교했습니다. 아레오파고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광장의 이름입니다. 또 하나는 아테네 최고 법원의 명칭입니다. 바울이 설교한 곳이 법원인지 광장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레오파고스 법원의 초청으로 아레오파고스 언덕에서 설교했을 수 있습니다. 아레오파고스 관원 디오니시우스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여 신자(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사건입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바울은 아레오파고스에 강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적절한 논리와 학문적 소양을 갖춘 새로운 방문객을 아레오파고스의 관원들이 공식적 연설자로 초청했습니다. 이것은 아테네 사회의 관행이었습니다. 아테네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학 도시였습니다. 아테네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출생지이고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 제논의 제2의 고향입니다.

아테네는 헬라 철학과 문학을 꽃 피운 헬라 문명의 요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방문했을 때 아테네 영광은 쇠락한 상태였지만 옛 영광의 흔적이 당당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웅장한 신전들, 헬라 문명의 발상지라는 시민의식, 그리고 당대 최고를 자부하는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 설교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바울의 아테네 설교는 행17:22부터 31까지 10절입니다. 이 10절의 설교는 신약 신학에서 가장 주목받는 본문입니다.

바울의 설교는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아테네 시민들과 철학자들의 잘못된 신관을 지적합니다. 바울 설교의 청중은 스토아학과 에피쿠로스학과였습니다. 스토아학파는 만물에 신적 생명이 있다는 범신론(Pantheism)을 따랐습니다. 반면 에피쿠로스학파는 신적존재는 저 멀리 우주 밖에 있다고 믿는 이신론(Deism)을 따랐습니다.

바울은 헬라 철학과 헬라 문학으로 두 학파의 철학자들을 설득합니다. 세네카의 글을 인용하여 우연으로 세상 만물이 존재한다고 믿

는 에피쿠로스를 공격하는 한편 스토아 철학자들을 감동시킵니다. 이 설교에서 바울은 세네카의 말을 간접적으로 다섯 차례, 에피메니데스와 아라투스의 말을 각각 한차례씩 직접적으로 인용하며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당대 최고를 자부했던 철학자들이 바울의 설교에 아무런 반박을 못합니다. 헬라 철학과 문학을 아는 사람이라면 담긴 바울의 인문학 소양에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당대 헬라 철학자들이 애송했던 시구들을 활용하면서 아테네 철학자들을 압도해 버렸습니다. 바울은 아라투스(Aratus)와 에피메니데스(Epimenides) 시구(詩句)를 유창하게 인용합니다.

28절 전반부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뻐하며 존재하느니라 (For in him we live and move and have our being.)”는 에피메니데스의 시구입니다. 에피메니데스는 그레테(Crete)섬 출신입니다. 바울이 그레테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보낸 디도서 1장12절에 인용한 “그레테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라는 시구의 시인입니다. 바울은 에피메니데스를 잘 알았습니다.

에피메니데스는 신적 영감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57년 동안 동굴에서 잠이 들어서 초인적인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플라투르코스가 쓴 ‘솔론의 전기’에 의하면 에피메니데스가 솔론과 함께 아테네 개혁을 주도했다고 합니다. 작품과 행적으로 메피메니데스는 아테네 유명인사였습니다.

28절 후반부에 “우리는 그의 소생이라(We are his offsprings)’

구절은 아라투스(Aratus)의 시입니다. 그는 바울과 고향 길리기가 출신으로 B.C. 3세기 학자요 시인입니다. 그는 “파이노메나(Phainomena)”, “찬가”, “에피그램” 등을 썼으나 남은 것은 제우스를 찬양한 파이노메나 뿐입니다. 아라투스는 제논의 제자인 철학자 “클리안데스(Cleanthes)”의 글을 인용하여 이 시를 썼고, 바울이 인용했습니다. 이 시는 당시 아테네시 민들이 애송했습니다.

에즈베리 신학교 위더링턴(Witherington)박사는 바울의 아테네 설교가 사회문화적 환경을 활용한 모범적 설교라고 주장합니다. 천주교 신학자 핏츠마이어는 ‘아테네는 헬라 문화 향기를 품은 고품격 도시였지만 바울은 압도되지 않고, 오히려 헬라 문화를 활용해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다소에서 헬라문화를 체득한 바울은 아테네 철학자들에게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설교가 헬라철학의 한 분파였던 견유학파(Cynics)의 가르침과 유사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견유학파에서 시니컬(Cynical)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바울을 ‘말쟁이(Bablier)’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신약에서 꼭 한번 사용된 단어인데 견유학파 디온 크리소스토모스의 상용어입니다. 대표적 견유학자 디오게네스가 아테네와 고린도를 오가며 활동했는데 바울도 아테네 후에 고린도로 갔습니다. 바울은 철학을 냉소적(Cynical)으로 압도했습니다. 바울에게 철학은 복음에 비해 시시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냉소적으로 보는 여유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헬라 문화의 심장부에서 순수 복음을 전합니다. 헬라 철학과 문학을 충분히 활용한 인문학적 설교로 하나님을 정확하게 전합니다. 바울은 이 설교를 통해서 “설교자는 청중의 문화를 존중하고, 청중과 래포(Rapport)를 세우고, 청중의 지성을 존중하지만 타협하지 말고 복음의 핵심을 전하라!”고 가르칩니다. 현재 선교사와 설교자가 마음에 담아야 할 교훈입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정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LA 노숙자지원, 아이티 쓰레기마을 아동지원, 수리남 참전용사 자녀돕기에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작은 나눔 (30불, 50불)으로 희망을 나누는 행복으로 초대합니다.

당신의 일부를 나누면 한 아이 인생의 전부가 바뀝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질병과 가난에 허덕이는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됩니다.



하나님만 향하는 ‘순수한 찬양’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역의 변화에 따른 교회 예배와 음악(5)

본지는 월드미션대학교 윤임상 교수의 소논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역의 변화에 따른 교회 예배와 음악”을 연재합니다. 오늘의 예배 음악을 진단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 음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편집자 주-

오늘날 교회 예배에 주는 도전들

4) 현대 교회 예배에서의 찬양

초대 시나산 예배에서의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드린 예배와 찬양,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드린 미리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찬양을 드렸는지 그 방법은 알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순수함과 즉흥성을 갖고 아주 뜨겁게 찬양드렸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높이 찬양하며 축복하는 가사가 있었던 사실을 볼 수 있다.

즉, 여호와께 경배하고 (출 24:1) 소고를 잡고 춤추며 찬양했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높고 영화로우심과 행하신 일에 대한 기사를 찬양하는 광경을 성경을 통해서 보며 (출애굽기15:20-21) 그 단서를 찾게 된다.

이와 같은 찬양의 모습은 구약에서 언급한 최초의 회중 찬양으로써 오늘날 현대 교회의 예배에서 찬양이 나가야 할 바른 길을 제시하는 중요한 단서로 삼아야 한다. 그리하여 필자는 이 내용을 소재로 삼아 오늘날 현대 교회 찬양의 현실을 진단하고, 예배 찬양의 바른 방법을 두가지로 제시하여 찬양의 본질을 확인하고자 한다.

(1)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과 즉흥성 있는 찬양

공식적인 회중 찬양의 모체가 되는 미리암과 백성들이 드린 찬양, 그리고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드린 찬양속에서 볼 수 있는것은 무엇을 꾸미려 하거나 인위적으로 만들어 찬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예배음악의 큰 변화 중 하나는 온라인 예배로 인해 예배가 영상으로 대체되면서 많은 예배음악은 찬양인들이 드



©pixabay

린 음악을 미디어의 힘을 빌어 새롭게 재 정비된 영상음악으로 바뀌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 과정 속에서 찬양을 드리는 이들의 마음 자세와,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먼저, 찬양을 드리는 찬양자들은 순수하고 즉흥성이 있는 찬양을 드리기 보다 영상과 소리에서 나타날 Post Production에 대한 의식을 갖고 인위적인 음악을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찬양자들의 신앙 고백과, 음악성과는 별도로 영상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미디어 엔지니어들의 능력과 재량에 의해 다양한 모습으로 재 생산된 찬양이 영상으로 만들어져 예배에서 찬양을 드리게 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온라인 예배에 많이 사용되어오는 버추얼 과이어(Virtual Choir) 또는 찬양팀들이 밴드 앙상블과 함께 찬양드린 영상을 예배에서 사용하는 것들이다.

요즘의 미디어 기술은 급속도로 크게 발달하여 원래 연주된 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원하는 소리로 다양하게 바꿀 수 있다. 또한 연주자의 틀린 음정과 박자까지 수정해서 바로 맞추어 줄 수 있는 그야말로 기막힌 기술을 지닌 소프트웨어들을 가지고 영상작업을 하게 된다.

그렇게 만들어진 영상 찬양의 많은 부분은 당연히 본연의 순수함을 잃어버린 채 인위적이고 획일적인 음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모든 찬양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원래 의도를 많이 벗어난 조작(Manipulation)

된 찬양이 나올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찬양의 본질을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한다. 찬송은 하나님을 향한 최상의 섬김으로써 그 안에 마음을 다한 섬김과 사랑의 표현이 담겨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은 내게 주어진 최상의 것으로 꾸미거나 가식이 없이, 있는 그대로를 드러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내가 전심으로...주께 찬양하리이다”(시138:1), 너희의 마음(Kardia: 심장)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엡5:19후반). 여기서 마음(심장)이 의미하는 것은 인간 내부의 중심인 양심, 감정, 충동, 애정, 혹은 욕망이 자리하는 곳을 말한다.

이에 미드웨스트 대학교 교회음악과 김대권 교수는 “인간의 모든 감정들이 작용하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만이 가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고 이야기 한다.

구약의 역사 가운데 교회음악의 꽃을 절정으로 피웠던 시기는 다윗의 계보를 이어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였던 솔로몬 왕정 시대였다. 이때는 대규모의 기악 합주와 성가대가 매 번 성전 예배때 찬양을 드리면 여호와와 전에 구름이 가득하게 채워지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했던 것을 성경이 이야기 한다.(대하 5:12-13)

또한 레위인들은 매일 성전에 모여 시편을 찬양하며 찬양의 삶이 일상화 되어 있는 모습을 본다. (대하

8:14) 이처럼 하나님을 크게 송축하며 경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부터 인간을 높이는 음악으로 바뀌었고,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나를 말하는 음악으로 전락했던 것이다. 비록 풍성한 음악과 세련된 양식으로 표현된 것이라도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되어서는 하나님의 단호한 책망이 있을 뿐이다.

이 사실을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하는 소리를 들어보자. 이사야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막7:6) 이 말씀은 입술의 고백과 마음이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호세아 선지자는 “나는 본제보다 하나님을 원하신다.”(호6:6) 라고 말한다. 선지자들의 이런 고백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찬양이 아닌 종교적 유희를 즐기는 찬양을 불렀던 것 같다.

이런 모습들을 보고 참다 못한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는 모습을 본다.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암5:23)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은 하나님께로 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하나님의 분노를 샀던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예배에서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는 미디어의 힘을 당연히 빌릴수 밖에 없다. 여기에 나를 드러내려 함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삼위 하나님을 순수한 열정으로 드러내려 하는 그 모습, 그 소리를 담아 드려야 한다. 영상을 담당하는 엔지니어들은

찬양인들이 드린 원본의 의도를 최대한 반영해 있는 그대로의 준비된 모습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찬양을 드리는 자들에게는 마음과 입이 하나가 되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그분을 높이는 진정한 고백이 되는 찬양이 되는지 계속 점검해야 한다.

종교개혁가 쾰빙글리의 말을 가슴으로 담아보자. “입으로 시편가를 부른다 할지라도 입과 마음이 같이는 주의하여야 한다. 기도 할때도 입과 마음이 오래 함께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노래는 어떻겠느냐?”. 회중들의 입장에서라도 예배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을 참된 예배자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예술적인 관점에서 찬양을 바라보고 판단하기보다는 그 찬양속에서 내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기억하고 동감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 세인자 스스로를 점검해야 한다. (계속)



윤임상 교수
월드미션대학교

2021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p>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BHE 정회원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홍준 목사)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p>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p>	<p>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기독교회(BA), 목회학사(M.Div), 상담학사, 선교학사, ESL, TESOL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목회학사 과정 신설 입학상담: 조종호 박사 716(26)227-3454 <p>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이상훈 박사, 이사장 : 조종호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aeu.edu, aeu@master@gmail.com</p>	<p>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p> <p>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p> <p>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p> <p>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p>	<p>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p> <p>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p> <p>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p>
<p>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BHE,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p>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p>	<p>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TRACS 정회원 인준 특 전 :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p>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p>	<p>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p> <p>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p>	<p>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p> <p>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p> <p>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p>
<p>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p> <p>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626)857-2200</p>	<p>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p> <p>With the world! To the world!</p> <p>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p>	<p>FULLER THEOLOGICAL SEMINARY</p> <p>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p> <p>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p>	<p>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p> <p>광고 및 후원 문의</p> <p>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p>

전 BLM 지도자 폭로 “흑인 가정과 학생 교육에 관심 없어”

미국의 미네소타 주 세인트 폴에 있는 '블랙 라이브스 매터(Black Lives Matter)' 운동 지부 설립자가 최근 이 단체의 '추악한 진실'을 폭로하는 동영상 공개했다고 1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세인트폴 BLM 지부의 설립자인 라샤드 터너는 지난달 26일 비판적 인종이론을 거부하는 미국 흑인 인권단체 '테이크차지 미네소타'가 올린 영상에 출연했다.

터너는 영상에서 “나는 이 단체가 그 이름-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대변한다고 믿었다”며 “하지만 내부에서 1년을 보낸 후, 나는 그들이 흑인 가정을 재건하는 일에 거의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단체는) 미니애폴리스의 학생들의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에도 훨씬 덜 신경 썼다”고 말했다.

그는 BLM이 흑인 아동을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일에 관심이 없

다는 것을 깨닫고, 1년 반 만에 BLM을 사임했고 현재는 미네소타 학부 모연합의 사장 겸 전무 이사를 맡고 있다.

터너는 “그것은 그들이 교사 노조와 함께 공개적으로 차터스쿨을 공개적으로 비난했을 때 분명해졌다”며 “나는 블랙 라이브스 매터의 내부자였고, 추악한 진실을 배웠다. 차터스쿨에 대한 중단은 흑인 가족 재건을 지원하지 않으며, 흑인 아이들을 위한 더 나은 교육을 장벽을 만든다”고 말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BLM은 “서구가 규정한 핵가족 구조”를 파괴하는 것을 핵심 원칙 중 하나로 기재한 홈페이지의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에 설립된 BLM은 지난해 5월 25일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하자 미국 전역에서 흑인 인권 시위 운동을 주도했다. 이 운동은 많은 미국인들이 흑인의 생명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반향을 일으켰지



지난해 8월28일 워싱턴DC에서 열린 BLM 시위 모습 ©크리스천포스트 제공

만, 인종 평등을 넘어 명백한 좌파적 정치 운동이라는 점에는 반대했다.

BLM 시위대는 미국 경찰에 대한 지원금 삭감을 주장하는 반면, 성소수자(LGBT) 의제를 추진하는 데는 적극 지원하고 있다.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이 단체의 설립자

성 3명 중 2명은 '동성애자'로 밝혀졌다.

또한 지난달 BLM은 이스라엘과 격렬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주장하는 팔레스타인의 해방과 연대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다가 국제 사회의 비난을 샀다.

미국 북음주의 지도자들과 기독교

단체들은 BLM이 “하나님이 없는 의제”를 지지하며, 이 단체의 많은 입장이 “명백히 반기독교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BLM공동 창업자인 패트리스 켈러스가 글로벌 조직의 출범을 도운 후, 이 단체의 사무총장직을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ABC 뉴스에 따르면, 켈러스는 2016년부터 미국 백인 부촌에 고급 주택 네 채를 구매한 사실이 보도되자, 기부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켈러스는 일련의 비판에 대해 “나의 인격을 떨어뜨리려는 우파의 공격이며, 나는 우파가 나에게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조작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지난해 6월 공개된 한 영상에서 자신과 다른 조직위원들이 “훈련받은 마르크스주의자들(trained Marxists)”라고 발언해 논란을 샀다.

김유진 기자

켈로그, LGBT 단체와 제휴... 포장에 '친동성애' 로고



켈로그가 성소수자 옹호단체와 제휴했다. ©Kellogg's

미국의 유명 시리얼 회사 '켈로그'가 성소수자 옹호단체와 제휴하여 동성애 캠페인을 장려하고 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5월 28일 보도했다.

켈로그는 지난주 미국의 친동성애 단체인 GLAAD와 합작한 '투게더 위드 프라이드(Together with Pride)' 캠페인을 공개했다.

이 캠페인은 “당신이 누구든, 누구를 사랑하든, 어떤 대명사를 사용하든, 당신은 상자 속에 들어가 기에는 너무나 멋지다”는 내용과 함께, “박스는 사람이 아닌 시리얼을 위한 것(Boxes are for cereal, not people)”이란 문구를 내걸며 전통적 성정체성 인식에 반대하고 있다.

미시간주에 본사를 둔 켈로그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올해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투게더 위드

프라이드' 시리얼이 판매될 때마다 GLADD에 3달러를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리얼 상자의 앞면에는 '동성애 무지개' 색으로 장식된 켈로그의 로고와 GLAAD 로고가 함께 새겨져 있으며, 상단과 측면에는 사람들이 자신만의 성별 대명사를 쓸 수 있는 공간이 그려져 있다.

GLADD는 게이 및 레즈비언 동맹 비정부기구로, 현재 미디어에 성소수자에 대한 수용을 장려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켈로그의 미국 시리얼 분야 총지배인 더그 반 데켈데는 이 새로운 시리얼을 “GLAAD와 수년간의 오랜 파트너십 중 가장 최근의 장”이라며 “이전에는 온라인에서만 이용이 가능했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올 투게더 시리얼의 진화”라고 설명했다.

켈로그가 친동성애 행동주의를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4년 켈로그는 애틀랜타에서 열린 '프라이드' 친동성애 축제를 후원하며, 이 행사 광고에 자사의 마스코트인 '호랑이 토니'를 포함시켜 비난을 받았다.

켈로그의 새로운 시리얼은 보수적인 기독교 단체들에게서 반발을 사고 있다. 미국 보수가정단체인 '전통과 가족 및 번영 수호를 위한 미국 사회'는 켈로그에 친동성애 시리얼을 홍보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탄원을 시작했다.

켈로그 CEO에 보낸 이 청원서는 “욕망과 악이 아닌 순수함과 미덕을 장려하라”고 촉구하며, “투게더 위드 프라이드' 시리얼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청원서는 5월 28일 오후까지 2만 1천명 이상의 지지자를 모았다.

CP에 따르면, 미국의 일부 기업들은 6월 성소수자 인권의 달(Pride Month)을 앞두고 공개적으로 무지개색 제품을 홍보해 왔다.

디즈니사는 최근 몇 년간 동성애 무지개색 그림이 그려진 '레인보우 디즈니 컬렉션'을 선보였고, 이어 무지개 색상의 디즈니 캐릭터 장난감을 출시했다.

지난 10월에는 미국의 유명 스키 제조업체인 나비스코가 성소수자 인권의 달을 기념하기 위해 다양한 색깔로 채워진 한정판 오레오 쿠키를 출시하기도 했다.

김유진 기자

갤럽, '이스라엘 지지' 미국인 58%... 공화당 79%, 민주당원 33% 찬성

미국인들은 중동 분쟁에서 팔레스타인 보다 이스라엘에 더 호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미국 '크리스천 헤드라인스'가 최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인의 58%가 이스라엘에 공감한다고 답했고 25%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했으며, 17%는 둘 다 반대나 지지 혹은 불확실하다고 답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은 미국 성인 1,021명을 대상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지난달 28일 이 결과를 발표했다.

갤럽에 따르면,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인의 지지는 2013년 64%에 비해 수년간 감소한 반면에,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지율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2005년에는 미국인의 18%가 중동 분쟁에서 팔레스타인을 옹호했고, 2017년에는 19%를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는 미국 성인 4명 중 1명이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특히 자신을 “진보주의자(liberal)”라고 밝힌 민주당원의 48%는 팔레스타인을 옹호했으며, 33%만이 이스라엘을 지지했다.

반면, 공화당원 5명 중 4명(79%)은 이스라엘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갤럽에 따르면, 민주당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미국 내 여론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갤럽 조사에서 민주당원의 39%가 팔레스타인에 동조한다고 답했으며, 42%



©Unsplash

는 이스라엘을 지지했다.

리디아 사드 갤럽 선임 편집위원은 2014년을 기점으로 민주당의 변화가 “현저하다(striking)”고 분석했다.

사드는 “2002년부터 2014년까지 민주당원은 팔레스타인보다 이스라엘 편에 설 가능성이 훨씬 높았다”며 “2014년 이후, 그 선호도는 점차 사라졌고, 이제 민주당원들은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 인들에게 동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갤럽에 따르면, 전체 미국인 중 44%는 미국이 중동 분쟁에서 타협을 이끌기 위해 팔레스타인을 더 압박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34%는 이스라엘을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원의 50%는 미국이 이스라엘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30%는 팔레스타인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화당원은 5명 중 3명(63%) 이상이 미국이 팔레스타인을 더 압박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유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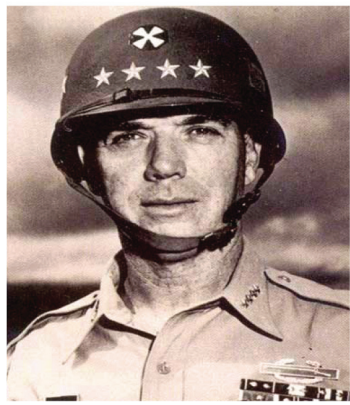
Never Ending Story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다큐영화 (제작참여)

한국전쟁 71주년을 맞아, 오늘의 자유와 번영을 지켜준 180 만명의 미국군용사들중, 34,000 전사자들과 13만 부상 군인들, 그리고 3,700명의 실종자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140구의 유해들...

아울러, 이들의 부모님들과 형제자매들 그리고 이 역사의 교훈을 들려주시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께 이 영화를 바칩니다.

현재 4개국 (한,미,러,중) 현지 촬영중이며, 이번 6.25 71주년때 상영될 수 있도록 뜻깊은 제작후원을 바랍니다. (감독 윤학렬)



**** 후원과 문의는 아래 미국 공동제작자인 기드온동작선교회로 해 주시면 되고, 모든 후원자와 단체의 명단은 영화자막에 게재합니다 ****



16825 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el. 425.775.7477 gbmwusa@gideonbrothers.org | www.gideonbrothers.org
 돕는 방법: Pay to: G.B.M.W(체크오더명)로 기입해서 아래의 주소로 보내주시면, 연말세금공제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미 법학자들 “핀란드 기독의원 기소 부당” 국무부 제재 촉구

미국 법학 교수와 학자들이 성경적 결핵환자를 공유했다는 이유로 핀란드 기독교인 정치인을 기소한 핀란드 검찰총장을 제재하도록 미 국무부에 촉구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미국의 정치 뉴스 웹사이트 ‘리얼클리어폴리틱스’에 발표된 공개 서한에서,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프린스턴 대학과 같은 아이비 리그의 교수들은 핀란드 전 내무장관인 ‘페이비 래세넨’과 핀란드 복음주의 루터교 선교 교구장인 ‘유하나 포흐올라 주교’를 옹호했다.

핀란드 복음주의 루터교회의 회원인 래세넨은 인간의 성과 결혼에 대한 자신의 성경적 신념을 표현한 것과 관련해 3건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최근 핀란드 검찰총장은 그녀를 정식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성명을 통해 래세넨이 동성애자에 대해 경멸적이고 차별적이며 평등과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기소 이유를 주장했으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래세넨은 최대 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

미국 교수들은 공개 서한에서 이번 기소가 “핀란드의 성직자와 종교 신자들에게 감옥을 선택하거나, 그들의 다양한 신앙의 가르침을 포기하는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그들의 도덕적, 종교적 신념을 표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의 기소는 ‘세계인권선언인권선언 18조’, ‘시민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8조’,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10조’를 위반한 “심각한 인권유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수들은 미국 의회 산하 정부 자문 독립위원회가 이를 국제종교자유

문제로 인식하고 직접 안토니 블링켄 미 국무장관에게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이유로 핀란드 검찰총장인 라이자 토이비아넨을 제재할 것을 촉구했다.

서명자들은 래세넨의 기소가 단순히 “유럽식 혐오발언법의 일반적인 적용이 아니”라며 “공공질서, 시민 평등, 종교적 자유의 합리적인 균형을 결코 자신의 신념을 믿고 표현할 권리를 억압하지 않는다. 기소는 단도직입적인 탄압 행위”라고 덧붙였다.

서한은 핀란드의 종교 자유 침해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특히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가 핀란드 검찰의 인권 침해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을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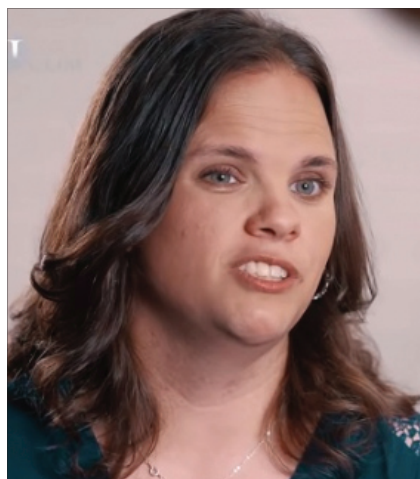
이 서한에는 메리 앤 글렌던 하버드 대학 러니드 랜드(법학) 교수, 애드리언 버뮤얼 하버드 대학 헌법학 교수, 로버트 조지 프린스턴 대학교 법학 교수 외에 8명의 연구원, 정치학, 국제학, 미국학 교수들과 변호사 등이 서명에 동참했다.

앞서 지난달 초, 유럽복음주의연맹(European Evangelical Alliance)은 핀란드 검찰이 “인권법에 대한 제정을 시도한다”며 래세넨 의원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토마스 버처 유럽복음주의연맹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표현의 자유는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공유할 권리를 준다”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다른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거나, 충격을 주거나, 방해할 수 있는 견해를 표현하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김유진 기자

트랜스젠더 남성에서 여성으로 회복... “하나님의 능력이 가능케 해”



트랜스젠더 남성에서 여성으로 돌아온 로라 페리 ©700 Club Interactive / YouTube

기독교 신앙을 통해 트랜스젠더 남성에서 여성으로 돌아온 로라 페리의 사연을 기독교일보 영문판이 최근 보도했다.

페리는 미국의 기독교 TV채널인 ‘크리스천방송네트워크(CBN)’에 출연해 자신이 받아들였던 “트랜스젠더 거짓말”을 깨고 하나님께서 여자가 되고자 하는 그녀의 갈망을 회복시켜 주었다고 간증했다.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소년처럼 느껴졌던 페리는 엄마와의 소원한 관계를 느꼈다며, “내가 여자 아이러사 사랑받지 못한다는 거짓말을 믿기 시작했고, 인생의 모든 것이 나는 남자 아이여야 했다”라는 렌즈를 통해 받아들였다”고 고백했다.

그녀는 8살이 되던 해에, 한 학년 위의 남학생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고, 이것이 그녀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고 했다.

고등학생 시절에 그녀는 남학생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무분별하게 잠자리를 가져 보았지만, 그럴수록 자신이 쓰레기처럼 취급받는 느낌을 받게 되었다고. 급기야 그녀는 자신이 남자로서 운명 지어졌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다고 했다.

그 후 페리는 성전환 호르몬을 투여하기 시작했고, 2009년에는 공식적으로 이름을 바꾸고, 남성이 되고자 가슴 절제 수술을 받게 된다.

페리는 “나는 결과에 매우 흥분했고 신체적으로 보이는 것이 마음에 들었지만, 수술이 나를 남자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나는 법적으로 남성이었고, 면허증과 출생 증명서 아래에는 남성이라고 쓰여져 있었다. 그럼에도 나는 가슴이 없는 같은 사람(여성)이었고, 정말로 남자가 될 줄로 믿었기에 그 일은 나에게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어머니로부터

성경공부를 위한 웹사이트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된다.

페리는 당시를 회상하며 “나는 성경에 관심이 없었지만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녀의 노트를 읽기 시작하면서 내가 읽은 내용에 깜짝 놀랐다. 이렇게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고백했다.

그녀 자신은 “항상 성경을 하나님의 규칙서 정도로 생각했었다”며 “나는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보며, 이전에 항상 보았던 분노하는 심판의 하나님이 아닌 사랑스럽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녀는 어머니로부터 ‘애야, 단지 주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Honey, you just need to trust the Lord)’라는 말을 듣게 되자,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된다.

그녀는 복음의 능력으로 완전히 변화된 어머니를 보면서 “복음은 진리”이며 “그리스도는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고.

반면,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한 후에도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하나님이 인정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회상했다.

페리는 “그날 밤 나는 기도하고 주님께 내 마음을 물어보았다. 그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었다. 나는 이것이 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정체성을 찾을 수 있었지만 여전히 남자로 남을 거라고 생각했다”며 “내가 남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만큼이나 여자가 된다는 사실을 대면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했다.

그녀는 “그 모든 남자들이 저지른 일과, 내가 평생 믿었던 거짓말 때문에 너무 많은 고통이 따랐다. 여성이 된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느꼈다”고 말했다.

페리는 “약 한 달 동안 밤마다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한쪽 무릎을 꿇고 계신 환상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는 구덩이에 손을 뻗어 ‘나를 믿니?’라고 물으셨다. 나는 그 순간 ‘만일 당신의 손을 잡으면, 당신은 나에게 모든 것을 떠나라고 할 것이다’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그게 내 유일한 탈출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평화를 누릴 수 없을 것임을 알았다”고 회상했다.

그 이후, 페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거룩한 교제를 이어갔고, 결국 잃었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었다고 간증했다.

강혜진 기자



LA 지역

LA백송교회
백암침례교 순교교회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 245-6616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심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T. (323) 833-9090

주일예배 오전 11:00
평일예배 오전 11:00
평일예배 오후 7:00
평일예배 오후 7:00
토요일예배 오전 9:00

씨니김 담임목사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위한 2인2세를 위한 교회, 이민자를 위한 교회, 선교를 위한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 & Edin Blvd)
T. (213) 386-2233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내세대에) 오전 9:30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대학생부/EM 오후 2:00
수요종교기도모임(수) 오후 7:30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h St. #412 (6가와 카탈리나), LA, CA 90020
T. (213) 909-6473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장태원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교대
1340 E 6th St, #419, LA, CA 90021
T. (310) 905-2228 / newchurchdtda.com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3:3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최순환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h.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예배 오전 11:00

한현영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그리스도와 / 성도와 / 이웃과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2:00
금요기도회 오후 7:00

강진웅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 1블럭)

주일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토)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치유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9191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랑으로 커뮤니티를 살리는 예수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1:00
주요예배 오후 7:30

김성지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하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87-1700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

주일 1부예배(분당) 오전 8:30
주일 2부예배(분당)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분당) 저녁 8:30
리듬예배(말씀예배) 오전 11:00

정장수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00
라티노 오후 6:30

신승훈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흠뻑 소신 초신자의 흠뻑, 바른교회관의 흠뻑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7:30
4대 지역 : 유인원 지역, 후드 지역, 장학 지역, 십자가 지역

이명수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영혼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502-9999 / www.smkc.us

1부예배 오전 10:30
2부예배 오후 1:30
성경 공부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신도모임기 만민부 지역 유일한 한인교회

김경렬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유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LA동부, 라스베가스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갯스월연합교회
여호와를 찾을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리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es.org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영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냄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50
영아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신용환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40
3부예배 오전 11:40
EM(Holy Wave) 오전 10:00

우영화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조영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침례교 회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토) 오전 6:00

안 환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기도회 오후 7:30 오전 6:30(토)
중국어 성경공부 오후 7:30(화) 汉语圣经班: 周二晚上七点半

조준민 담임목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T.(714)461-6412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EM성경공부 오후 7:00(금)
중보기도요일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www.laopendoor.church

밸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주일 1부 오전 7:00 JCOCC Academy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2부 오전 9:00 오전 10:15, 오후 12:40 (교육관)
주일 3부 오전 11:00 EM 오전 11:15 (교육관)
Blended Service
사랑부 오전 8:45 (교육관)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일 내 길에 빛이오니이다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중고등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없는 교회 변화하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 오전 9:30 사랑의 빛 반 주일 오전 11:30
주일 3부 오전 11: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젊은이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www.lolmc.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 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한어 청년부 주일 오후 1:00
오전 6:00(토)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곽덕근 담임목사**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블리제틀 MP제틀 **최 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303 S. Garfield Ave., Monterey Park, CA 91754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교육부 후원예배
금요성령집회 오전 7:30 금요성령집회 오후 8:30 (수요주중예배: 오후 6시)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주일공부 오전 11시 (금요주중예배: 오후 7:30)
1954 Hiram St., Northridge, CA 91326 EM: 오후 1:30
T. (818)9393-5887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중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549-9199/ choonghyun.org

사우스베이, 토렌스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이호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유중등부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치부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신태섭 담임목사

가디나 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310)217-9191 www.gpclove.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이석부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45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나성금란교회
기쁨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중/고예배 오전 11:00 **권영국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EM 1부 9:30/ 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서보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강신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금요일 저녁 7:30 **김경환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이동진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EM예배 오전 11:00 오전 5:40(토)

성화장로교회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찬미하며, 함께 걷는 믿음-사랑-소망 공동체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310) 515-1191 www.sungh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박성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EM예배 오전 10:45 금요성령대중회 금 오후 7:20

주님세운교회
처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17910 Prair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이상훈 담임목사**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90247
T. (714) 296-6783 www.sbhivision.org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이종용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창조주,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 530-4040 / F.(310) 530-8400 / cornerstonet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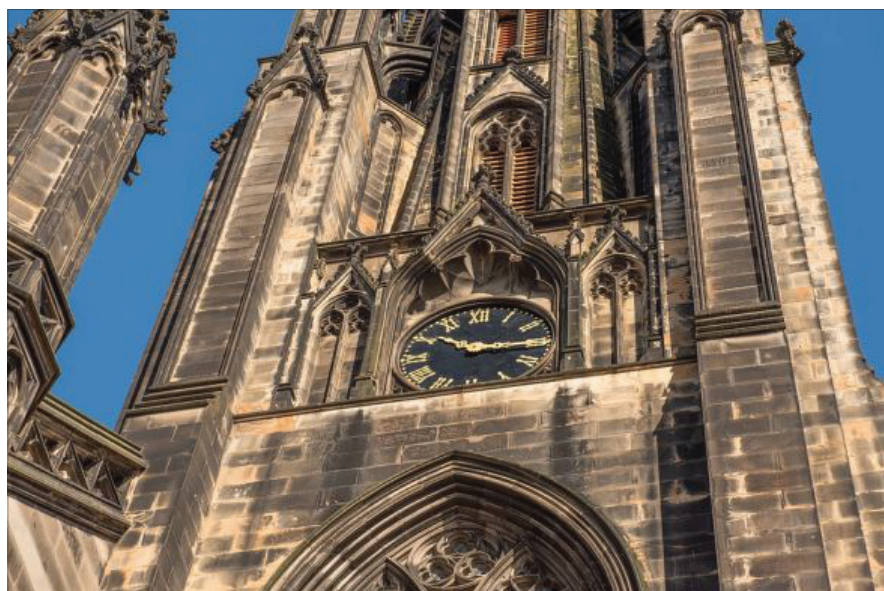
주일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00
EM예배 1부 오전 9:30/2부 오전 11:0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스코틀랜드교회, 동성결혼 주례 허용 법안 승인



스코틀랜드 한 교회. ©pixabay.com

스코틀랜드교회(Church of Scotland)가 동성결혼 주례를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스코틀랜드교회는 최근 에든버러에서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 총회 도중 목회자가 동성커플의 결혼을 주례할 수 있는 법 조안을 승인했다.

2018년 총회 '법적질의회원회'(Legal Questions Committee)는 이를 허용하기 위한 입법 연구 수행을 지시한 바 있다.

최근 총회에서 제시된 법안 초안은 319표 대 217표로 승인됐으며, 이제 논의를 통과해 추가 검토를 받게 됐다. 논회 의견에 대한 보고서는 오는 2022년 총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다수 노회가 승인하고 내년 총회에서 합의한 경우에만 발표된다.

스코틀랜드교회는 지난 2015년부터 동성결혼을 한 동성애자 목사를 받아들였다. 법안 초안에 따라 (동성애에 대한 전

통주의 관점을 지닌 목사는 동성결혼 주례를 강요받지 않을 것이다. 누구도 명시적으로 원하지 않는 한 동성결혼 주례에 참여할 의무는 없다.

동성결혼 주례를 지지하는 글래스고 드럼체플 세인트 앤드류스 존 퍼브스 목사는 법안 초안에 대해 "누군가의 강한 신념이나 관행에 위협되지 않는다"며 "아무도 타협할 필요가 없는 조항을 만들었다. 그 당시에는 이로 인해 분열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표현됐다"고 했다.

폴 커크 브라이언트 교구 교회 장로인 에릭 스미스는 추가적인 고려를 위해 법안 초안을 신학 포럼에 보내자고 제안하며 "최근 몇 년 동안 동성결혼에 뿌리를 둔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었다. 제한된 다른 접근 방식을 제공해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결혼이라는 견해를 수정하고 희석하려는 동시에 전통적 견해를 일관되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혜진 기자

"2020년 네덜란드 안락사, 사상 최다인 6,938명"



©픽사베이

RTE 보고서 발표... 전체 사망자의 4.3% 달해

작년 네덜란드의 안락사 시술 건수가 사상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네덜란드에서 매년 안락사에 의한 사망을 분석해 온 RTE(Regionale Toetsing Commission) 보고서는 최근 "2020년 한 해 안락사에 의한 사망자 수는 6,938명"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의하면 이는 연간 사망률로는 가장 높은 수치로, 올해 전체 사망자의 4.3%에 달한다. 2020년 안락사 사망자는 종전 최고치였던 2017년 6,585명을 넘어섰다. 네덜란드가 안락사를 합법화한 첫 유럽 국가가 된 2002년, 안락사에 의한 사망자 수는 1,882명이었다.

RTE 제로앵 레쿠르(Jeroen Recourt) 의장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안락사를 건널 수 없는 고통의 해결책으로 보는 세대가 늘고 있다. 또 안락사를 절망 속에 고통을 받는 많은 이들에게 평안을 주

는 선택으로 여기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2020년 10월, 네덜란드 정부는 1세에서 12세 사이 어린이들도 안락사를 할 수 있도록 현재 안락사 법 적용을 확대 허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환자와 부모의 동의가 모두 이뤄지면, 12세 이상 어린이들과 생후 1년차 유아에게도 안락사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 영국 '생명에 대한 권리'(Right To Life) 캐서린 로빈슨(Catherine Robinson) 대변인은 "네덜란드에서 의사 조력 자살의 급증을 목격하는 것은 비극이지만, 놀랍지는 않다"고 했다.

그는 "다양한 형태의 자살이 허용됐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증명됐듯이, 일단 '죽기를 원함'이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도 도움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 받아들여지면 더 많은 이들이 그렇게 하도록 강요받을 것이고, 결국 중증 말기 환자들에 대한 안락사 등 자발적인 것 이상으로 그 범위가 확장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유진 기자

유기성 목사 후임 캔사스한인중앙연합 감리교회 김다위 목사



유기성 목사(왼쪽)와 후임으로 결정된 김다위 목사. ©유튜브

선한목자교회(담임 유기성 목사)에서 후임 담임목사를 결정했다. 2년 후 부임할 목사는 현재 미국 캔사스한인중앙연합감리교회에서 사역중인 김다위 목사(42)이다.

유기성 목사는 지난 5월 30일 영상을 통해 교우들에게 이를 직접 소개했다. 1957년생인 그는 조기 은퇴 이유에 대해 “저희 교회는 장로님들께서 65세 자원 은퇴를 하시게 되면서, 그때 담임목사인 저도 자원 은퇴를 하기로 결정했다”며 “저는 7년 전부터 후임 목사님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장로님들께 후임 목사님을 모실 준비를 하자고 부탁드렸다”고 소개했다.

유 목사는 “그래서 교회는 세 가지 단계를 거쳐 후임 목사님을 정했다. 첫째로 후임 목사님을 정하는 프로세스를 정하는 기간을 2년여 거쳤다”며 “둘째로 어떤 분이 좋은 목사님인지 1년간 TF를 구성해서 찾았다. 셋째로 다섯 후보자 중 한 분을 찾는 일을 진행했고, 지난 4월 청빙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한 분을 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5월 한 달간 대표 임원회를 거쳐, 97.3%라는 압도적인 동의를 얻었다”며 “그래서 지난 주일 구역 인사위원회를 열고 감리사님께서는 오셔서 새로운 선한목자교회 새 담임목사님, 우리가 확정지은 목사님을 최종적으로 통과했다”고 전했다.

유기성 목사는 “그래서 오늘 교우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2년 뒤 새 담임목사님 되실 분을 소개한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계신 모양이다. 나이 42세의 젊은 목사님”이라며 “그러나 저는 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후임 담임 목사님을 준비하셨음을 깨닫는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후 김다위 목사에 대한 소개 영상이 이어졌다. 교회 측의 소개에 따르면, 김다위 목사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되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제자가 되도록 훈련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

성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다.

김다위 목사는 감신대와 대학원 졸업 후 미국 유학을 떠나 세인트폴신학대학에서 목회학 석사를 마치고 지난 5월 듀크대에서 목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선한목자교회에서 2003년 12월 사역을 시작했고, 2010년 10월 중앙연합회에서 목사인수를 받은 후 미국 유학을 떠나 2011년 7월부터 UMC 교회들 중 가장 주목받는 부활의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다. 사역 중 캔사스한인중앙연합감리교회에서 담임목사 청빙을 받고 현재까지 사역하고 있다.

부임 당시 이 교회는 많은 어려움으로 성도들이 20명도 채 모이지 않았으나, 김 목사 부임 후 8년 동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으로 교회를 사랑으로 신실하게 세워 200여명이 모이는 교회로 부흥했다고 한다.

김 목사는 불신자들과 다음 세대를 십자가 복음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제자를 세우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사명의 길을 신실하게 달려가고 있다. 가족은 아내 유경아 사모, 자녀 3명이 있다.

영상에서는 김다위 목사가 직접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그는 “먼저 이 자리에 서게 되고 인사드릴 수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며 “제가 감히 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 이 자리에 합당한 사람일까 하는 생각과 함께, 너무 영광스럽고 소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 주시게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이민교회에 있으면서,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8년간 조금이나마 배울 수 있었다”며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예수님 성품을 닮은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제게 주신 사명”이라고 밝혔다.

유기성 목사는 최근 가장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는 주일 3부 예배를 부교역자에게 맡기는 등 목회 계승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이대웅 기자

“총신대 이상원 교수 부당해임 철회” 서명자 1,335명 촉구

‘총신대학교 이상원 교수 부당 해임 철회와 총신대 정상화 촉구 공동 성명 발표’ 기자회견이 4일 오후 3시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예장 합동 총회 회관에서 개최됐다.

한국복음주의윤리학회, 한국성과학연구협회, 성산생명윤리연구소 등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교육부가 이상원 교수를 해임한 것의 부당성을 알리며 온라인 서명운동을 펼쳐 왔다. 그 결과 1,335명이 적극적으로 이에 참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권요한 선교사, 김영한 원장, 박윤성 목사, 황봉환 교수, 이은선 교수, 윤치환 목사, 김윤태 교수, 이일호 교수, 이승구 교수 등이 순서 및 발제를 맡았다.

이들은 “교육부가 이상원 교수의 해임철회 소청을 기각한 바, 교육부의 부당한 처사를 철회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며 “최근 총신대 정이사회가 출범하였으므로 이제는 그간 총신대 관선이사회의 부당함을 엄중히 조사하여 총신대 이상원 교수의 부당해임을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무엇보다 총회 차원에서 총회가 총신대를 감독하도록 총신대의 정관을 재정비하고 그간 관선이사회와 관계자들의 부당한 처사를 치리하여 총신대가 기독교사의 위상을 정립하고 한국교회의 명실상부한 선지동산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법원에서 이상원 교수에 대한 해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2차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2020가합 21135 해임효력정지 등 가처분, 2020가합 21557 가처분이의) 교육부가 이상원 교수의 소청을 기각한 것(2020.11.18.)은 교육부가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학문의 자유를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이 교수의 강의를 성희롱으로 적시하고 그 근거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평균적인 사람의 기준’을 제시한 것에 대해 “그 근거 자체가 불확실하고 우리 사회의 윤리적 가치에 반하는 편향된 가치관[성인지(젠더=동성애)] 감수성”이라고 지적했다.

또 “오�히려 이 사안을 조사한 총신대 대채위원회는 이 사안이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고, 상당수의 총신대 학생들과 교수, 목회자, 시민들은 총신대 이상원 교수의 해임이 지금이 부당하다고 선처를 탄원한 바가 있다. 교육부 온라인 탄원서 총신대 재학생(졸업생) 225명, 교수 목회자 787명”고 했다.

이율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동성간 성행위는 비정상적인 성적 교섭행위로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성적 만족 행위’로 판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경호 기자

김우준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KM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5:30

토레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org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O.C., 엘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30
새벽예배(월-금)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635
T. (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금요찬양 오후 7:30
점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대형찬양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6:00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E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저녁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

이 일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복수 생으로 활로 살려 생애공평케 하니 그 생애 복수게 모인 생애 공평케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lcfc.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애배 생령 천로 세운 밤이 함께 달려가는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한국학교 주일 오후 1:3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유·초등부 수요일예배 오후 8:00
중·고등부, 대학원부 한국학교 주일 오후 1:30

왕상윤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주일 오전 6:00

최순길 담임목사

LA 임마누엘교회

562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0
T. (714)743-0141

1부예배(EM) 주일 9:00am
2부예배(KM) 주일 11:00am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유·초등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매월 두번째 금
새벽예배 화-금 5:30am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 1부 예배: 오전 9: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유년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주일 오전 11:00

목요제례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 오전 6:00(화-금)
셀모임: 매달 둘째 및 넷째 금요일
새벽예배: 주일 오전 6:00(화-금)

안상희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Everlove Baptist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46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92833
T. (714) 525-0191 / www.ebsoca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30(화-금)

김일권 담임목사

다감사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988-3321, (562)896-1665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Youth / College 주일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안성복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30(화-금)

김일권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r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 영어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일본어 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 예배 오전 11:00
English Ministry 오전 11:30
주일학교/중고부 오전 11:00

청년부 오전 11:00
Hispanic Service 오전 9:30
수요 예배 오후 8:00

정기정 담임목사

샘물교회
풍성한 하나님을 누리는 공동체

15151 Cordova Rd, La Mirada, CA 90638
T. (714)749-7770 www.saemool.church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9:15, 11:30
한어부 오전 11:30
KM대학원부 오후 2:00

박신용 담임목사

얼바인은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30
FAM에 오전 11:30(청년 영어)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정년부 수요일예배 오후 7:30

엘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매월 마지막 금요일
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07:30
2부예배 오전 09:20
3부예배 오후 11:3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영어) 오전 10:00
3부예배 오후 11:45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신원규 담임목사

좋은마을교회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T. (714)646-9259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 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문/사/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2021년 학위수여식

초대합니다

할렐루야!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 이사진, 교수진 및 졸업생 일동은 본교 학위수여식에 아래와 같이 여러분을 정중히 초대합니다. 모두 참석하시어 졸업하는 학생들의 앞날을 위해 기도와 격려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위수여자

명예목회학박사:진건호목사 | 명예신학박사:이학진장로
신학석사:손사라목사 | 교역학석사:채수전, 김나오미, 백선경, 로완리
신학사:임정열, 안정희

일시: 2021년 6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LA 찬양교회 (김성대목사사무)
3401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 2021학년도 여름학기 //

신입생 | 편입생모집 6월 21일 개강

실시간 인터넷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수있습니다.

본교 지원시 특전

- 1) RPCA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신학학사과정 (B.Th)

목회학석사과정 (M.Div)

상담전화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213-272-6031

개혁주의 신앙이란?



송재호 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사람들은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말을 즐겨 쓴다. 이처럼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이 중요할 줄 알지만 개혁주의 신앙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많다. 물론 '개혁주의'라는 말의 의미를 간단하게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

왜냐하면 개혁주의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고, 역사적 배경에서 형성된 용어, 복음에 대한 이해, 사회와 문화에 대한 태도 등을 포괄하는 신학적 용어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개혁주의는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해 대두된 신학적 용어이기 때문에 교회사 전통에서 헤아려 보는 안목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럼 구체적으로 개혁주의 신앙이란 무엇일까?

먼저 개혁주의는 그 고유한 원리나 강조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 사상'이다. 이 하나님 중심 사상은 개혁주의 사상을 통괄하는 기본 원리라고 할 수 있다.

기본 원리라는 말은 개혁주의자들이 믿는 교리의 기본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개혁주의자들의 삶을 지배하고 동기와 방식을 제공하는 원리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처럼 개혁주의의 하나님 중심 사상은 곧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주권 아래서 살아가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개혁주의의 독특성을 미국 칼빈신학교 교수였던 클루스터(Fred Klooster)는 '성경적 원리'라고 말했다. 즉 클루스터가 말한 '성경적 원리'란 성경에 기초한 신관과 우주관, 신앙관, 그리고 하나님과 인

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이처럼 개혁주의는 성경을 신앙과 생활의 절대적인 그리고 유일한 근거로 삼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성경 중심(Bible-centered)'이란 말은 오직 성경만이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범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처럼 개혁주의의 운동은 전 유럽으로 확산되어 지금의 독일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루터의 개혁 운동으로 이어져 루터파(Lutheran)를 형성하였고, 스위스의 개혁 운동, 곧 츠빙글리와 칼빈의 개혁 운동 세력이 연합하여 개혁파(Reformed)를 형성하게 되었다.

또한 개혁주의 신학이 언약신학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온 새 언약(누가복음 22:20)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중요한 세 가지 첫째 성경의 권위, 둘째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에 대한 구원을 강조한다.

이처럼 개혁주의 신학에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믿음과 실천의 모든 문제에 충분하다고 가르치는데 이것을 우리는 성경의 권위라고 말한다.

또한 개혁주의 신학에선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를 가지고 통치하신다고 가르치는데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부르며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와 자비에 따라 한 백성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고 구속하셨다는 가르침을 "은혜에 대한 구원"이라고 부른다.

이처럼 개혁주의는 역사적 상황 속에서 출현한 신학 전통이다. 이 전통은 이전의 전통을 없애고 새로운 전통을 만들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전통 중에서 원래의 본질적 가르침에서 벗어난 것을 교정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런 뜻에서 수많은 역사적 논쟁 속에서 점점 더 구체화 되고 정교화 되었고, 이것들은 신앙고백이라는 형태로 자기 정체성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역사성을 가지기 때문에 교회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개혁주의를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처럼 개혁신학의 특유성은 이 신학체계가 "성경에 가장 충실하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성경에 대한 열심과 순종을 다시 한 번 마음 속에 새길 수 있기를 기도해 본다.

주일성수 그리고 성수주일



신용환 목사
나성한미교회

모든 것이 Reopen 되고 Return 되어지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Reset(다시 맞추다. 다시 제자리에 놓고 고정시키다. 재설정하다. 초기화하다)입니다. 이 세상의 변화뿐 아니라 교회와 신앙과 믿음 안에서 다시금 확인하고 점검하고 회복해야하는 우리 <신앙의 Nomal 과 교회의 New Nomal>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주일성수라는 말을 들어 보셨습니까? '성수(聖守)'라는 단어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뜻입니다. 뒤집어 읽은 성수주일은 <거룩하게 지켜내야 하는 주일>의 의미도 있습니다. 주일 성수는 어느 시대와 상관없이 중요하고 강조되어야 하는 우리 신앙의 기본중에 기본이며,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변해도 주일 성수의 신앙과 정신은 바뀌면 안되는 기독교 신앙의 유산입니다.

'코로나19, 한국교회에 어떤 영향 미쳤는가'를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묻는 <당신의 주일 성수는 안녕하십니까?>였습니다.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코로나 시대 이후에 교회가 가장 큰 위기와 어려움은 "코로나 이후 주일성수와 성도간 교제가 약화된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위기는 주일 성수의 위기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주일성수에 대한 태도와 마음가짐과 열정이 퇴색되고 식어가는 원인을 <1. 성도의 세속화 2. 신앙의 편리주의 3. 교회의 소비자 중심주의> 꼽았습니다. 무신론자였던 프랑스의 작가 볼테르는 "그리스도인을 없애려면 먼저 주일부터 없애야 한다"고 말했지만, 천교도들은 주일을 '영혼을 위한 장날'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날'로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일성수는 이 시대에 희미해진 신앙 원

칙중 하나이지만 주일성수는 예배의 기초다. 주일예배는 주일성수의 일부이다. 주일성수가 있어야 주일예배가 있고, 주일예배가 있어야 주일성수가 있다. 주일은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태도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가 압축되어 있는 기독교 신앙의 축소판과 같아서 성경에 근거한 신학적 이해의 필요성이 절박한 사안이다.

주일은 예수님이 제정하신 날이며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여 지키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구약의 율법을 부정하거나 폐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고 온전케 하려 오셨습니다. (마 5:17) 구약 율법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계명이며 그 십계명의 4계명 안식일에 대한 명령이 있습니다. (출20:8) 구약의 율법의 안식일은 1)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날입니다. 2)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식하고 쉬시는 날입니다. 3) 우리를 복주시고 복되게 하는 날입니다.

이러한 안식일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그저 종교적인 형식과 틀로 그 정신은 잃어 버린채 외식적인 형식으로만 가득찬 율법적인 날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안식일의 정신,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주일의 의미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 안식일을 주인은 사람이나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라 인자되신 예수님이시다. (마 12:7-8)

2)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날이지 형식적인 종교를 위한 날인 아니다. (막 2:27-28)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후 첫날 바로 주님의 부활의 날, 그리고 성령이 오신 오순절>을 기념하여 주의 날 (Lord's Day)라고 기념하고 지켰습니다. 성경적인 주일의 날은 바로 <안식후 첫날(요 20:19) / 주중의 첫째날(행 2:7)>입니다. 주일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후에 성령의 오순절 강림으로 교회의 탄생과 관련이 깊습니다. 주일은 일주일의 마지막날이 아니라 첫째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의 달력에 말하는 태양신의 날 Sunday가 아니라 주님의 날 Lord's Day입니다.

1.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날이다.
2. 주일은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날이다.
3. 주일은 성령의 강림을 기념하는 날이다.
4. 주일은 주님의 복주시고 되게하시는 날이다.
5. 주일은 주님 안에서 안식과 회복을 경험하는 날이다.

박광철 목사의 영성 개발

분주함... 영성 개발에 장애



솔트하우스교회 대표
박광철 목사

사 중에 만일 어떤 사람이 "요즘엔 한가하십니까?"라고 묻는 이가 있는가? 그보다는 "요즘도 많이 바쁘시지요?"라고 묻는 경우가 더 많다. 그리고 바쁘게 지내는 것이 마치 바람직한 생활인 것으로 착각하기도 하여, 어떤 사람은 수첩에 빼곡하게 일정을 정해 놓고 그것을 은근히 자랑한다.

그러나 너무 바쁜 것 (too busy)은 정말 "너무 바쁜 것" (badly busy)이다.

너무 분주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다면 그것은 지나치게 분주한 것이다. 할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 날에는 어떤 것을 생각하는가? 흔히 아침 식사를 대충 또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한다. 아무리 바빠도 얼굴을 씻는 것과 여성들이 화장하는 것은 빼수가 없다. 그런데 바쁘다는 이유로 종종 기도하는 것과 성경을 읽는 것을 생각하는 이들도 많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여러 번 반복되면 조용한 아침 시간이나 늦은 저녁 시간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완전히 잊고 사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모두 같은 분량의 시간을 할당 받았는데 사람들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갈린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며 사는 것은 좋지 않다.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을 죽이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인생은 창조주로부터 제한된 시간을 할당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것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서 크게 달라진다. 가능하면 대충이라도 하루의 시간 계획을 세우고 사는 것이 필요하고 또 삶과 사역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이며 창의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할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기본적인 것부터 습관화하라.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매일 또는 한 주간의 스케줄을 세우라. 일에도 종류가 많다. 예를 들어서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중요하고 또 급한 일 등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중요하고 급한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삶의 지혜다. 이것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실천하면서 자연스럽게 결정될 것이다.

하루의 24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인생을 바로 사는 것이다.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고 말한다 (엡 5:16). 모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뜻이다. 지혜로운 시간 관리가 영성 개발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불행한 가정생활

영성 개발에 있어서 또 하나의 장애물은 불행한 가정생활이다. 가정은 모든 삶과 사역의 기초이며 기본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생물을 만드시고 최초로 세우신 공동체가 바로 아담과 하와 부부로 이뤄진 가정

이었다. 민족과 국가와 교회와 군대 등의 모든 공동체는 가정이라는 가장 작은 단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가정이라는 삶의 기초가 견고해야 그 위에 세워지는 모든 공동체가 견고할 수 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가정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으시고 남성이나 여성이라는 성(性)과는 무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성도를 그의 자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족과 같은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암시한다.

행복하고 원만한 가정생활이 활력적인 삶과 사역을 가능케 한다. 물론 결혼하지 않은 사역자들도 많고 또 어떤 이유에서든지 혼자 사는 이들도 많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결혼하지 않는 "특별한 부르심"이 없는 경우라면 가정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인간은 혼자 살 수 없고 일차적으로 부모와 더불어 살며 또한 형제와 자매 그리고 친구와 친척을 비롯하여 이웃과 함께 살아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가족 관계에서 의견 충돌이 많고 갈등이 지속되면서 영성을 발전시키고 풍성한 삶을 살기는 어렵다. 결혼한 사람이라면 우선 부부 사이에 신앙적으로 좋은 합의를 이뤄야 한다. 부부는 여러 측면에서 하나가 되었으며 영적인 면에서도 의견이 소통하고

함께 성숙해 가야 한다.

행복한 부부가 행복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다. 아이는 태어난 직후부터 부모를 보고 삶을 배운다. 가장 먼저 언어를 배우고 생활 모습을 모방한다. 경상도나 전라도 사투리가 심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자연스럽게 그 지방의 사투리를 말하게 되고, 목소리가 크거나 반면에 소곤거리는 부모의 목소리를 늘 들으며 자라는 아이는 그것을 배우게 된다. 마찬가지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또 예배하는 것이 일상화된 가정에서는 어릴 적부터 신앙 훈련을 받게 된다. 그렇지만 늘 다투고 갈등하며 서로 충돌이 많은 가정이라면 신앙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부부와 자녀들이 가정일을 서로 협력하는 것을 훈련하라. 부부가 서로가 믿는 종교가 다르거나 속한 교회의 교단이 달라서 신학적 주장이나 교회 정치적인 견해에 차이가 많아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다. 어느 가정이 남편이 복음적인 신앙을 가졌지만 아내가 이단에 빠져서 자녀들이 방황하는 것을 보았다. 부부가 한 마음과 한 신앙이 되어 자녀들과 더불어 가정을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자녀들과 많은 대화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삶을 건강하게 한다.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는 이 시대에 복 받은 가정은 영적으로도 한 마음이 되는 가정이다.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해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CD Printing

CD전문 주니어미디어입니다.
교회실교,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컨텐츠 제작

전도용 볼티슈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Han's piano tuning

피아노조율

James Han
 Sale Used Piano
 Professional Tuning
 Repair & Moving
 godfist91@gmail.com
 Tel : 562-822-6778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치과의사 이동희
이동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통증탈출 양자칩

양자파동 에너지 칩

- 양자에너지(16번 공정을 거친 토션이라는 제5의 힘, 토션필드 토션장, 회전 전자파, 스핀파)가 30cm이상 방출
- 생체에너지 활성화, 최상의 컨디션 유지.
- 적혈구를 깨끗하게 하여 활동성을 강하게 하고 신속하게 젖산 배출.
- 12경락 365경혈 신속하게 풀어줌.
- 침시술 이상의 효과

▶ 신체 어느 곳이든 통증에 사용합니다.
천연 자연물질과 양자에너지를 융합시켜 자연 에너지를 방출하는 획기적인 제품으로 팔, 다리, 허리, 어깨, 목 등 통증이 있는 곳에 붙이는 반영구적 칩입니다.

▶ 면역력 강화
자연 에너지를 인체에서 공명, 흡수함으로써 활발한 기혈순환으로 신진대사가 원활하므로 체온이 약 0.5~1°C 상승되어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양자 깔창

양자파동 에너지 쿠션 죽초액 발매트

- ▶ 추천인
당뇨분들의 발보호, 평발인 분, 뒤꿈치 갈라진 분들, 족막염성 통증, 발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 발목, 발바닥, 발등 백색 건선 피부, 족부 혈행 원활, 직립형 활동 직업, 발 관련 질환자, 평안하고 아늑한 보행, 피로를 현격하게 감소
- ▶ 원리
걸을 때 3배의 하중에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주는데 제품 착용시 무거운 체중을 골고루 분산시켜 허리, 무릎 부담을 현저히 줄어든다.
- ▶ 제품의 특징과 효능 및 효과
1) 죽초액 : 체중 분산, 구름을 걷는 느낌, 마사지 효과
2) 은 : 항균, 향취 효과
3) 원적외선 방출 분말 : 신체의 모든 부분을 원활하게 함
4) EM 유용 미생물 : 굳은 각질을 제거해서 발을 부드럽게 함.
5) 양자 에너지 처리 : 온 몸에 활력이 넘친다.
6) 제품의 특징 : 신체의 여러 흐름을 빠르고 원활하게 함.



※사용시간만큼 쿠션감은 약해질 수 있으나 미생물 번식, 분해, 원적외선 방출, 양자파동 에너지는 반 영구적으로 나옵니다.



장재효 목사의 은혜의 샘

믿음의 종류와 단계

마가복음 4:10-20



서울성교회 목사 장재효

믿음마다 종류가 있고 단계가 제각기 다르다는 내용으로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서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좋은 믿음으로 좋은 결실을 거두었을 때 하늘 나라에 가서 영광스러운 자적으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교훈을 다양하게 이해시키시기 위한 목적으로 비유라는 방법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지 얼마 안되어 갈릴리 해변에 가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시고 앉으시고 사람들은 배를 향하여 비탈진 해변에 모여 앉아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심을 들었는데 그 비유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지워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도 못해 상당히 궁급했구나 봅니다. 예수님이 홀로 조용히 계시는 곳에 12제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설명을 좀 해달라고 간청을 드리니 예수님이 풀이해서 설명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들 마음 밭의 상태를 네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길 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라 했습니다.

기대할 것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예 굳어버린 마음, 책임성도 없고 뉘우침도 회개도 없는 강박한 마음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진리인 씨앗이 마음에 계속 떨어져도 굳어진 땅에 뿌리를 내리거나 싹이 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런 마음을 좋아합니다. 교회에 가게 내버려두고 설교들을 때 잘 듣게도 하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과 같은 마음 밭은 그 사람도 모르는 사이에 새가 주워 먹어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교회는 갔다 왔는데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전혀 소망 없는 마음가짐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으로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라고 합니다. 그곳은 흙이 얇아서 그 씨앗이 금방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는 것 같아 굉장히 기쁘하고 소망적으로 기대도 가졌었는데 햇빛이 뜨거워지니까 수분이 말라버리고 또 뿌리를 내리면서 바위와 돌들이 수분을 빼앗고 결국은 죽고마는 싹이 되어버립니다. 이들은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쉽게 말씀을 내던지고마는 경망한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흙이 얇은 돌밭은 강박해진 마음위에 한을 품고 살며, 누군가가 죽이고 싶도록 밟고 원망스럽고, 온갖 혐기와 정욕이 한으로 맺혀있는 심령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들볶으며 살다보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믿고 의지하며 간구하는 자에게 기도 응답의 해결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말씀 들을 때에는 기뻐하며 기대

를 걸었었다가 그 말씀들이 결국은 성과를 보지 못하면 자기 자신의 굳은 마음, 여러 가지 응어리진 돌덩어리로 인하여 더 믿음이 지속되지 못하고 말라죽어 버리고 맙니다.

세 번째로는 가시나무가 우거진 그 틈새에도 씨앗이 떨어져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립니다. 그러나 가시나무가 사방에 뿌리를 거미줄같이 얽혀 내리고 거름의 양분을 다 빨아 올렸기 때문에 이 틈새에서 더 이상 영양분을 섭취할 수 없는데다가 가시나무가 햇빛도 막아서 싹이 자라려다가 노랗게 잎이 변하면서 시들어 죽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라고 하십니다.

세상염려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허욕으로 빚어진 염려입니다. 재리의 유혹은 재산 이익을 미끼로 하는 유혹을 말합니다.

헬라어로 '플로네시아'라는 말은 계속 더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 성경엔 욕심이라고 써여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영과 육의 합성체가 사람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영은 본체인 하나님을 흠모하고 갈망하고, 의지하며 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는 그 본질이 흠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흠에 속한 것들을 기대하고 그 본능을 좇아 허욕을 일삼고 그래서 육체적인 인간은 짐승과 다를게 없는 것입니다. 짐승에게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는 있는데 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육체 본능을 위하여 삽니다.

사람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되었고 육체는 흠으로부터 빚어진 것이기 때문에 육체는 흠에 속한 것, 이 세상 것을 위하여 허욕을 일삼게 되어있고 영은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애타게 찾고 그리고 그분에게 영육간에 힘든 사정, 형편, 역울함, 내 모든 것들을 그분으로 더불어 해결과 위로를 기대하게 되는 것이 종교심리(Religious mind)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네 가지 사실을 통해서 내 마음 상태는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지

금 길바닥과 같이 다져지고 굳어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는데 전혀 깨달음도, 감동도 없고, 후회도, 회개도 없는 심령이라면 그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굳어버린 자기 마음을 말씀의 칼날이나 괄이나 삽으로 파서 일구어 굳은 것을 부드럽게 만들면 뿌리가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실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소망으로 믿어지는 믿음이 얻어졌을 때 그 사람은 평생 사는 목적이 하늘나라 가기위한 목적뿐인 인생이 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바라보고 그곳에 가기 위한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지게 된다면 그 사람의 마음 밭은 옥토 밭인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죽으면 가져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범접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도 바로서서 천국에 영광스러운 자격으로 들어가야 겠지만 다른 영혼도 구원시켜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사명이 씨 뿌리는 자의 사명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첫 번째는 예수님이었고, 그 다음엔 사도들이었습니다. 현재는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목회자들이고, 그 목회자들에 의해서 거듭난 신도들이입니다. 목회자들에 의해 진리를 깨달아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늘소망을 가꾸고 있다면 그 사람도 하늘소망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비밀인 생명의 비밀, 생명의 씨앗을 얼마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먼저는 내 자신의 마음 밭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굳어버린 심령은 회개의 호미로 파 일구어서 응어리진 것 다 풀어버리고 돌도 바위도 깨뜨려 옥토가 되게해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살아서 여러분들의 생명이 하늘소망에 의해 결실할 수 있어야겠고 다른 영혼들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씨를 계속 뿌릴 때 많은 열매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 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 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국 신문 설교					
기독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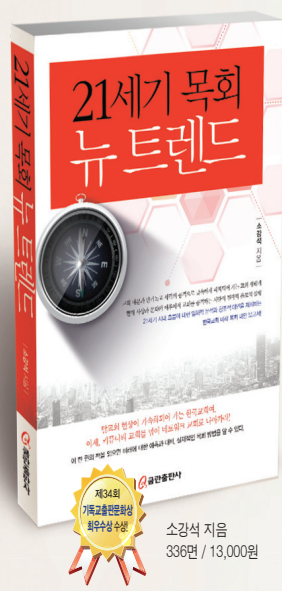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작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 성은복음선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통합)

부총회장 당선 "한국교회 발전을 위해 크게 쓰임받길 기도합니다"



21세기 목회 뉴 트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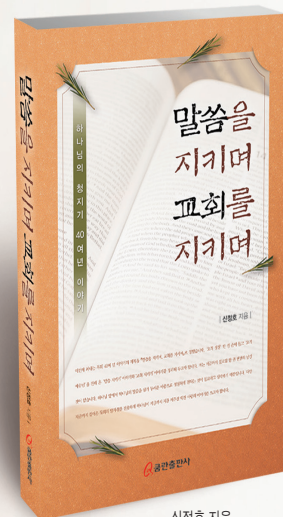
교회 내분과 반기독교 세력의 공격으로 급속하게 파괴되어가는 교회 생태계 현대 사상과 문화의 배후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전략과 음모의 실체 21세기 시대 흐름에 대한 입체적 분석과 창조적 대안을 제시하는 한국교회 미래 목회 대안 보고서!

탈교회 현상이 가속화 되어가는 한국교회여, 이제 커뮤니티 교회를 넘어 네트워크 교회로 나아가라! 이 한 권의 책을 읽으면 미래에 대한 목표와 대안, 실효적인 목회 방법을 알 수 있다.

소강석 목사



1995년 월간 문예사조로 등단하여 한국연립교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세계선교회 담임목사로 사임하고 있다. 수많은 세미나와 부흥회 인도를 통해 다음세대를 이끌고갈 차세대 대표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06 한국기독교총회 최우수상, 미션 루터 킹 국제평화상, 한국기독교총회 최상 수상, 찬양문학대상을 수상한 바 있고,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상, 대한민국 보훈문화상, 자랑스러운 한국인상을 받았다. 일사간조의 목회정신과 아름다운 순경에서 나오는 그의 절실 활동은 많은 목자들에게 진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며

- 하나님의 청지기 40여 년 이야기 -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지킨다'는 청지기 사상은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킴으로써 오는 고난도 각오해야 한다'는 의미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부지런히 전도할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온 전주동신교회와 신철호 목사의 이야기다. 교회 개척을 꿈꾸는 신학생, 목회자, 성도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신정호 목사



호남신학교, 정로회신학대학원, 연세대학교연세신학대학원, 서남대학교, 동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미국 유년대학교에서 목회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전주노회장, 총회 근·농어촌 부흥, 회의록 사기, 총회 정책개발연구원, 세계선교부원, 총회사기, 호남신학교 총동문회장, 한국기독교총회 논설위원으로 봉사했다. 현재 전북 CBS 운영이사, 호남신학교 객원목사, 연세대학교 이사, 한국노회교회 회장, 전주동신교회 담임목사로 봉직하고 있다.

박옥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공산주의와 중국발 미세먼지(2)

중국 공산주의가 초래한 중국과 주변국의 환경재난

중국의 환경오염과 그로 인한 우리 국민들의 고통, 인간 본모습 대한 자기반성 없는 사회가 겪는 고난, 친환경기술 발전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공산주의자들과 중국인들 비현실적 인식 혁파해야

◆공산주의와 환경파괴: 비현실적 인간 이해와 근거없는 변증법적 낙관론

계몽주의 시대 사상이 대개 그러 하듯, 마르크스 공산주의 역시 철저 하게 인간 중심적이다.

이들은 '인간의,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세계'를 꿈꿨다. 인간이 주체가 되고 인간의 계몽된 이성을 도구삼아, 인류 전체를 위한 도덕적 삶을 영위해 나가는 세계, 이것이 마르크스가 그리던 이상적 미래상이었다.

인간의 지성과 양심에 대한 그의 확고한 신뢰, 그리고 인류의 밝은 미래에 대한 신앙과도 같은 기대는 헤겔 사상의 직접적인 유산이었다. 헤겔은 인류 역사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모순-지양-종합'의 변증법적 진보 과정 덕에, 인간 정신이 하나님의 영과 합일되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헤겔은 인간이 지닌 원초적 죄성을 간과하고, 인간 스스로에 의한 자력구원을 설파했다. 이러한 주장은 기독교적 관점으로 보든, 아니면 인류 역사 현실에 빚대어 보든, 어느 편으로 보더라도 비현실적인 것이었다.

마르크스는 젊은 시절 청년 헤겔 파에서 헤겔의 역사적 변증법 사상을 탐구하면서, 자신만의 고유한 변증법적 사회이론과 경제이론의 틀을 만들어 갔고, 이 과정에서 헤겔 사상에 배태되어 있던 비현실성을 그대로 계승했다.

마르크스 변증법은 우선 공산주의 사상을 통해 계몽된 혁명 전위 세력의 지적 능력과 도덕성에 무한한 신뢰를 보인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공산주의는 역사적 현실에서 원래 목표했던 민주적 프롤레타리아 독재로 나아가지 못하고 공산당 일당독재 혹은 일인 독재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마르크스의 변증법적 경

제이론은 19세기 당시 자본주의 현실에서 최첨단 산업이었던 중화학공업 육성을 산업 발전의 최종 목표로 삼는다.

중화학공업의 성공에 의한 생산력의 비약적 증대를 통해, 개개인에게 분배할 생산수단과 사회적 자산을 충분하게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공산주의 국가 경제발전의 대한 마르크스의 지침이었다.

일당 독재 혹은 일인 독재를 정당화할 수밖에 없는 사상적 구조에다, 중화학공업 육성만이 진정으로 성공적인 공산주의 국가경제를 이룰 수 있다는 교설이 겹쳐진 까닭에, 대다수 공산주의 국가들은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해 급진적이고 무리한 독재적 수단들을 총동원했다.

소련과 중국, 그리고 북한이 대표적이다.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선 직후, 서구 선진국들에 비해 경제적으로 크게 낙후되어 있었던 이들 국가들은 기존의 주력산업인 농업을 희생시키고, 인권과 복지, 그리고 과학적 전망을 묵살하면서 중후장대형 중화학공업 설비 구축에 나섰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회복 불가능한 수준의 자연환경 파괴를 일삼았다.

1958년 시작된 중국의 대약진 운동과 그 첫 번째 단계인 제사해 운동(除四害運動, 네 가지 해충을 제거한다는 뜻, 일명 참새 죽이기 운동 -편집자 주)은 그 가운데서도 가장 피해 규모가 심각했다.

농업에 투입해야 할 인력과 물자를 지질 고로 건설과 철 생산에 동원해 농업 생산력이 급감했고, 고로를 운용하기 위한 뿔감의 무분별한 채취로 삼림이 크게 훼손되었으며, 농경지의 생태에 대한 면밀한 고찰 없이 무작정 농민들을 참새 사냥에 동원해 참새의 먹이가 되는 해충들이 급증했다.

그 결과 중국 전역에서 농경지와 삼림 황폐화, 생태계 파괴가 일어났고, 기근으로 3,000만명 가량의 대량 아사자가 발생했다.



중국의 한 중화학공업 단지. 대기오염과 환경파괴 행태가 극심하다. ©brecorder.com 캡처

◆중국 공산당과 환경파괴: 중국의 공산주의 정치경제 이념이 초래한 환경파괴

대약진 운동과 그 일환이었던 제사해 운동은 1962년 중단됐다. 그 폐해가 막대해서 중단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중국은 이후로도 환경 보호를 도외시한 채, 중화학공업 육성을 지속했다. 1976년에 마오쩌둥이 죽고, 1978년에는 덩샤오핑이 화궈펑을 제치고 중국 공산당의 최고지도자로 등극했다.

덩샤오핑은 중국의 낙후된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실용주의 노선을 택했고, 자본주의적 정책들을 상당부분 허용했다. 또 해외자본 유입을 독려하고 중국 기업들이 사방 선진국들의 기술을 도입하거나 탈취하는 일을 장려했다. 이러한 그의 정책은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이라는 말로 대표된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덩샤오핑이 실용주의 노선을 택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그가 선진 자본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삼았던 것은 아니다.

덩샤오핑은 마르크스와 마오쩌둥의 공산주의 책략에 따라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막대한 생산력을 이용하려 했을 뿐, 공산주의적 정치경제 이념을 포기한 적이 없다.

즉 중국은 여전히 공산주의 경제 체제를 고수하는 나라로서, 원칙적으로 국가의 모든 생산수단과 재화를 중국 공산당 일당이 소유한다.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 역시 마오쩌둥 시절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현명한 판단을 그대로 믿고 따르면, 다른 모든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환경 문제 역시 순식간에 해결될 것이라는 근거없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강요했다.

그리고 중화학공업에 대한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의 집착 역시 달라진 바 없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세계무대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 어

쩔 수 없이 첨단 정보통신 기술, 반도체와 AI 기술 등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마오쩌둥시 공산주의 사상을 국가의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는 중국 공산당의 궁극적 경제발전 목표는, 여전히 사람의 노동력을 주로 활용하는 중후장대형 중화학공업의 육성에 집중되어 있다. 이로 인해 중국의 환경오염 및 환경파괴 정도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가장 높은 수준에 올라 있다.

미국의 저명 과학자이자 문화 인류학자로서 <총, 균, 쇠>(Guns, Germs, and Steel, 1997)의 저자로 널리 알려져 있는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문명의 붕괴>(Collapse: How Societies Choose to Fail or Succeed, 2005)라는 저서에서 한때 융성했던 문명이 완전한 붕괴에 이르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으로 '해당 문명 구성원들의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 환경 문제에 대처하는 방식'을 지목했다.

그리고 현대 국가들 가운데 중국이 이러한 점에서 문명 붕괴 위험도가 가장 높은 국가들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 그만큼 중국의 환경오염 및 환경파괴 수준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결국 중국의 현재 환경파괴는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진단해볼 때, 다음의 여러 요인들이 종합되어 초래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우선 중국 공산당의 반종교적 태도로 인해, 중국인들에게는 지구와 인류 종말에 대한 위기감이 없다. 대다수 중국인들은 공산주의의 계몽주의적 인간관과 독재체제에 불들려 모든 문제를 공산당 지도자들이 해결해줄 것이라는 근거없는 확신을 갖고 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은 마르크스와 마오쩌둥의 시대에 뒤쳐진 교설로 인해, 환경파괴에 가장 커다란 역할을 하는 중화학공업의 무제한적인 육성에 집착하고 있다. 중국은 이 세 가지 요인이 맞물려 자국은 물론 주변국 전체의 자연환경을 초토화시키고 있는 것이

다.

중국의 공산주의 정치경제 이념이 바뀌지 않는 한, 중국의 심각한 환경오염 및 환경파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한국인들은 앞으로 몇 세대를 더 중국의 오염물질 때문에 고통받아야 할지 모르는 암담한 상황에 처해 있다.

영화나 드라마 등의 제작 규모로 볼 때 미국에 못지않는 규모를 자랑하는 중국 대중문화 콘텐츠 업계에서 유독 지구와 인류의 멸망, 환경 생태의 완전한 파괴를 주제로 다루는 작품이 없는 것도,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의 환경 문제에 대한 비현실적 인식과 태도에 기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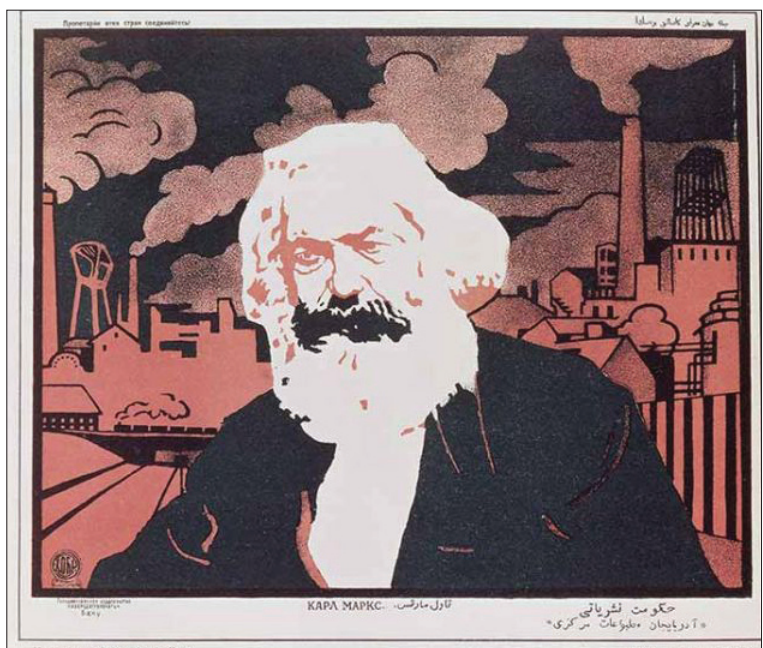
환경 파괴에 대한 위기감도 없고, 혹 위기 상황이 오더라도 영웅적인 공산당 지도자들이 해결해줄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중국의 환경오염과 그로 인한 우리 한국 국민들의 고통은 죄성과 무지에 사로잡힌 인간의 본모습에 대한 겸손한 기독교적 자기반성이 없는 사회가 감내하게 되는 고난의 한 양태로 볼 수 있다.

중국의 환경오염 문제,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된 한국의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는 단순히 친환경기술의 발전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세계와 자연 생태에 대한 중국 공산주의 지도자들과 중국인들의 비현실적 인식을 혁파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박옥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연세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했으며, 동 대학원에서 조직신학 석사 학위(Th.M.)와 종교철학 박사 학위(Ph.D.)를, 침례신학대학교에서 목회신학 박사(교회사) 학위(Th.D.)를 받았다. 현재 서울에서 목회자로 섬기는 가운데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기독교와 문화의 관계를 신학사 및 철학사의 맥락 안에서 조명하는 강의를 하는 중이다.



중화학공업 육성을 인류 경제발전의 최종적인 종착점으로 여겼던 마르크스. ©newstatesman.com 캡처



중국 마오쩌둥의 대약진 운동, 그리고 그 일환이었던 제사해 운동으로 초래된 대기근 당시 한 중국 가정의 모습. ©borgenproject.org 캡처



1979년 지미 카터 대통령 재임 당시 미국 백악관을 방문한 덩샤오핑. 실용주의에 입각해 중국 경제성장의 초석을 놓은 인물로 평가된다. ©historyofyesterday.com

아트설교연구원 인문학 서평 **못난 게 아니라, 조금 서툰 겁니다**

부족한 자신을 미워하기보다, 응원하고 사랑하는 방법

우리가 완벽해서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사랑스러운 존재가 된다



못난 게 아니라,
조금 서툰 겁니다
조지선
책으로여는세상 | 272쪽

**어설픈 위로는 가라!
삶에 서툰
보통의 어른들에게
한입심리학이
전하는
“근거 있는 위로”와
“일상밀착형
조언들”**

우리는
틈을 보여 주지
않으며 살려고 한다.
빈틈이 보이면
매워 말끔한 자신을
만들어 내려고 애쓴다.

빈틈이 없어야
아무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나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믿는다.
그런데 말끔해 보이는
그 '어른'의 내면도
정말 관찮은 것일까?

살다 보면 누군가를 미워할 일이 생긴다.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일은 가슴 아픈 일이다. 미움의 결말은 비참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가장 비참한 경우는 자신을 미워할 때 일어난다.

사람들은 자신의 장점보다 단점에 집중할 때가 많다. 남들보다 부족하고 못난 것에 집중한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자신이 미워지게 된다.

자신이 미워지면 열등감에 빠지고 열등감은 콤플렉스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어떻게 자신이 미워지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못난 게 아니라, 조금 서툰 겁니다》의 저자 조지선은 심리학을 공부하면 자신이 덜 미워지게 된다고 말한다.

“심리학이 제게 준 것은 알면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을 때 더 자유로워진다는 믿음입니다.”

예전에는 자신이 참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심리학을 공부한 이후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라며 자신에 대해 품었던 오해가 해소됐다고 한다. 자신이 참 못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래. 누구든 그럴 수 있어”라는 마음의 해방감을 느끼게 된다.

《못난 게 아니라, 조금 서툰 겁니다》는 부족한 자신을 미워하기보다 응원하고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 말해준다.

우리는 왜 부정적인 것에 예민한 것일까? 저자는 부정적인 것에 반응하는 ‘부정편향’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한다.

나쁜 말은 좋은 말보다 더 기억에 남고, 비난이 유발하는 분노와 슬픔은 칭찬이 주는 기쁨보다 훨씬 크다. 이런 현상을 ‘부정편향’이라고 말한다.

사회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는 부정적인 정보는 긍정적인 정보를 압도한다고 말한다. MIT 대학 연구에 따르면 트위터에서 가짜 뉴스는 진짜 뉴스보다 70% 더 많이 리트윗되고 6배나 빠르게 퍼진다.

우리가 부정적인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생존 본능 때문

이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신호에 재빠르게 반응해야 한다. 위기가 닥쳐올 때 민감하게 반응해야지 재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그러나 부정적인 반응에 대처하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들면 문제가 생긴다. 저자는 부정적인 생각에 빠질 때 이렇게 질문해 보라고 조언한다.

“나에게 행동 변화가 필요한 상황인가? 아니면 단지 부정편향인가?”

행동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부정적인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는 편이 좋다. 그 때 필요한 것이 ‘세이버링’이다. 기본 좋은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세이버링’은 심리학자 프레드 브라이언트가 고안한 방법으로 ‘삶의 긍정적인 모습들을 알아채고 고마워하며 감상하는 것’이다.

저자는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고 말한다. 엄청나게 기쁜 사건은 인생에서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 인생은 몇 번의 기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소소한 행복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심리학자 데보라 대너와 데이비드 스노든 연구팀은 행복에 관련된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위스콘신주 밀워키에 있는 수녀원에서는 수녀로 살겠다고 수도사원을 한 수녀들에게 매일 편지를 쓰게 했다. 편지를 분석한 결과 ‘기쁘다, 행복하다, 희망적이다. 흥미롭다, 감사하다, 기대된다’와 같은 긍정적 정서를 많이 표현했던 수녀들이 더 오래 살았다.

긍정 정서 문장이 1% 증가할 때마다 사망률이 1.4% 줄었다. 건강한 삶을 살고 싶다면, 일상에서 행복의 빈도를 높이는 일을 해야 한다.

일상의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자신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여자 배구 국가대표로 유명한 김연경 선수는 어릴 적 키가 작았다고 한다. 그래서 주변에서 훌륭한 배구 선수가 될 수 없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 그럴 때마다 김연경 선수는 이렇게 생각했다.

“어렸을 때 키가 작았어요. 너는

안 된다. 그 키로 무슨 배구를 하냐’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수없이 부정적인 얘기들을 들었지만 당돌하게 항상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왜 안 돼? 하면 되지! 재네들보다 더 많이 뛰고 노력하면 될 거야. 안 된다는 저 말을 내가 바꾸어 놓을 거야라고요.’

조건이 좋은 사람은 과연 행복할까? 행복은 외부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심리학자 에드 디너는 타인의 외모 평가와 자존감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실험을 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상반신 사진을 찍고 외모 평가단에게 평가를 부탁했다. 좋은 평가를 받은 사람은 행복지수가 높았을까? 아니다.

연구 결과 행복을 결정하는 주된 원인은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주관적 평가였다.

‘당신의 외모를 1점에서 10점 점수로 평가해 주세요’라는 요청에 높은 점수를 표시한 사람이 더 행복했다. 객관적인 타인의 외모 평가보다 주관적인 외모 평가 점수가 행복지수와 관련이 있었다.

남들이 예쁘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닌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니가 행복한 것이다. 남들의 평가가 아닌 자신의 평가가 더 중요하다.

자신을 미워하지 않게 되면 다른 사람도 덜 미워진다. 마음에 여유 생기기 때문이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다. 실수하고 후회한다. 삶

의 구멍도 많이 있다. 그게 인간이다. 완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자리는 없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자신은 능력이 없다고 말한다. 자신은 말을 잘 하지 못해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너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주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 주신다. 우리가 완벽해서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사랑스러운 존재가 된다. 인생의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다 지나간다.

심리학자 필립 브리만은 미국에 사는 22명의 로또 당첨자들과 29명의 하반신마비 환자들, 로또에 당첨된 적이 없는 22명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지금 얼마나 행복하세요?”라고 질문했다.

결과는 로또 당첨자들은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에 비해 일상적 활동에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언젠가는 지나간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외부의 평가에 자신의 삶을 맡기지 않고, 나를 가장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삶이 되기를 소망한다.

김현수 목사
행복한나무교회 담임
출처:아트설교연구원

“삶에 서툰 보통의 어른들”의 흔한 모습

- 남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서툰 것 같다
- 티를 안 낼 뿐, 사람들의 말에 쉽게 상처받는다
- 실은 작은 일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 다른 사람들이 날 좋아했으면 좋겠다
- ‘내가 그렇지, 내가 되겠어’라는 혼잣말을 하곤 한다
- 예쁘고 잘생기면 삶이 행복해질 것만 같다
- 탄생각을 많이 하고, 집중이 잘 안 된다
- 늘 바쁘게 사는데, 정작 중요한 일은 못 하고 있다
- 좋은 습관을 갖고 싶지만, 작심삼일도 어렵다
- 복권에 당첨되면 삶이 정말 행복해질 것만 같다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2021년 가을학기 게이트웨이 신학대학원의 한영이중언어과정(KEB)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 등록마감일 : 유학생 6월 1일, 미국거주자 8월 15일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GE)
- 주 소 :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

한영이중언어과정(KEB,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은

-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이중언어 과정입니다.
- 세계 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회가 후원하며 게이트웨이(구, 골든게이트)의 탁월한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이민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역량있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 과정입니다.
- 원격 수업도 지원합니다.
- 북미주 최고의 학력 인증 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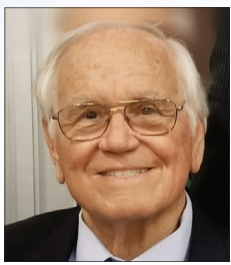
공식 홈페이지 www.gideonbrothers.org

(제2차) 8.15 광복 76주년 기념 글로벌복음통일전문 선교컨퍼런스[KONA 2021]

Global Expert Network Reunification Korea Mission Conference [KONA2021]

"북한도 수년내 부흥케 하소서, It Will Surely Come!" (Hab2:3)

북한선교의 다양한 전문가들(역사, 기도, 정치, 경제, 인권, 구제, 지하, 문화, 영화, 교육 등)의 지혜와 전세계의 부름받은 청년들과 연합으로 복음통일의 길로!



(축사) 로렌 커닝햄 총장 YWAM



(격려사) 주선애 교수 장신대 명예

- 일 시 : 2021년 8월 9일(월)~8월 14일(토)
- 장 소 : 하와이 KONA
- 문 의 : T(425)775-7477, 기독교일보 T(213)739-0403
- 대 상 : 한어/영어권 누구나(영어동시통역)
- 참가방법 : (현장 대면 또는 ZOOM 비대면)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



(대회장) 임현수 목사 TMTc



(연합) 정성진 목사 거룩한빛광성교회원로



(디아스포라) 권준 목사 시애틀형제교회



(복음) 박한수 목사 제자광성교회



(회개) 오창희 목사 횡돌교회



(경제) 신창민 교수 '통일은대박이다'



(기도) 이용희 교수 에스더기도운동



(농업) 김학송 선교사 전)평양과기대



(역사교육) 황준석 목사 Friendship Council of U.S



(구출구제) 천기원 목사 두리하나



(통일법) 송인호 교수 한동대학교



(정치) 김선진 교수 전)통일부홍보팀장



(지하교회) 강석진 목사 '북한교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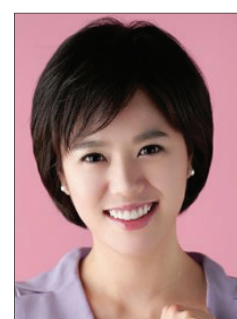
(영상문화) 윤학렬 감독 '철가방우수씨'



(영어2세) 채지미 목사 NT2 Mission



(증언) 김연영 자매 2015년 탈북



(진행) 황현주 아나운서 사회복지전문연구원



(총괄) 박상원 목사 GBMW



주최: Global Expert Network Reunification Korea Mission

주관: NT2 Mission 협찬: 미주기독교일보